

March
2010.3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HEART OF KOREA CHUNGCHONGNAM-DO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3
FOCUS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17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일자리 창출	30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44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및 물가	7. 건설 및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5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75
	2. 충남 주요경제지표	77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9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92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94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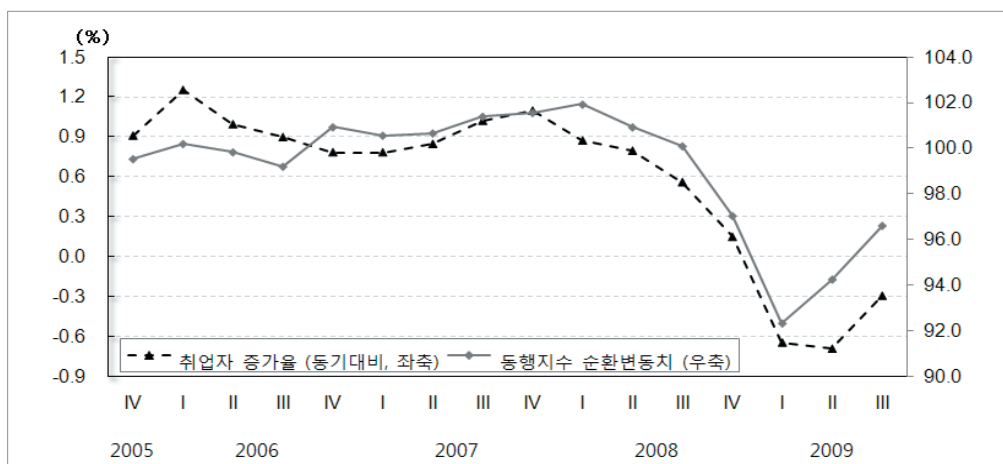
김 용 성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2008년 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빠르게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적기에 인식하고,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다른 OECD 국가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외환 유동성은 경상수지가 회복·안정화되면서 크게 개선되었으며, 위축되었던 산업생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각종 경기지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기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끌어올리고, 투자와 소비(이를 합쳐 ‘내수’라고 한다)는 다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간결하게 표현한 격언이 ‘높은 파도는 모든 배들을 들어 올린다(Rising tides lift all boats)’이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졌던 경기종합지수가 2009년 1/4분기 저점에 도달하면서 취업자수 증가율도 하락하였다가,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래그림 참조).

1) 본고는 기고자의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8-09)을 발췌 정리한 것이며, 일부 통계치는 업데이트하였음을 밝힌다.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취업자수 증가율



주: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경기종합지수, 각년도.

거시경제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은 ‘경기의 하락으로 고통을 받았던 계층이 과연 경기가 상승하면서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가?’이다. 복잡한 이론적 논의를 빌려올 필요 없이 과거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경험을 떠올리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안정된 직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대부분이 다시 안정된 생활로 돌아갔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즉 경기의 부침은 미시경제학으로 볼 때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칭적인 모습을 띄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회복은 모두에게 다 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약속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결국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며, 경기회복의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 2년 전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고통을 겪은 계층이 청년층(15~29세)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쉽게 입증된다. 청년층 취업자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보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취업자의 증가율이 회복되던 2009년 2/4분기 이후에도 청년층의 경우 $-2.1\%(2/4) \rightarrow -2.7\%(3/4) \rightarrow -4.0\%(4/4)$ 로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²⁾

2) 최근(2010년 1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9세의 연령층은 여전히 -0.7% 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2009년 1/4분기 8.6%에서 2009년 4/4분기에 오면서 7.6%로 떨어졌으니,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업률만 떼어 놓고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나라에 청년층이 100명이라고 하자. 이때 40명은 취업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60명 중 10명은 일할 능력도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구직자라고 하자. 이때 실업률은 $\text{구직자}/(\text{구직자}+\text{취업자})\times 100$, 즉 $10/(10+40)\times 100=20\%$ 가 된다. 이제 경기가 나빠져 과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아예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자. 이때 실업률은 $4/(4+40)\times 100=10\%$ 가 되어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게 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미취업 청년들(10명)이 취직의 희망을 버리고 일자리 찾는 것조차 포기하면 실업률은 0%가 된다. 다시 말해 실업률은 현실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앞에서 본 예와 같이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한다면, 실업률의 하락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상 없는 사람이 체중을 줄이게 되면(실업률의 하락) 건강해지지만, 만약 체중의 감소(실업률의 하락)가 다른 질병(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사태가 훨씬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연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 하락은 건강한 체중의 감소로 볼 수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과거 5년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청년층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비중은 2005년 51.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6.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의 실업률 감소가 취업에 성공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계속된 취업실패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마저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업률의 하락은 건강한 체중감소가 아닌 다른 질병,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표 1〉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경제활동 비율(%)	51.5	53.1	54.3	55.4	56.2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유능한 의사라면 병의 성격을 알아야 하듯이,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을 소위 ‘그냥 놀고 있는’ 또는 ‘놀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부터 사회구조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³⁾ <표 2>와 같이 통계청은 편의상 비경제활동의 사유 즉 구직을 포기한 다양한 이유를 9개로 유형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2〉 구직포기 사유: 청년층(15~29세)

(단위: %)

구직포기 이유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5.2	16.7	15.6	12.9	14.6	12.2	12.1	13.8	17.2	14.5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2.6	22.2	24.7	29.1	24.9	30.6	23.6	25.4	25.2	28.6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7.8	10.4	5.8	7.4	11.7	12.7	7.2	8.4	6.6	5.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6.9	3.9	4.6	7.5	4.1	2.3	4.0	6.6	7.6	8.2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	2.5	0.9	1.4	0.7	1.3	0.9	0.4	0.7	0.1	0.7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5.5	18.7	16.3	22.5	19.9	24.1	21.4	21.6	20.7	24.6
육아, 가사	8.6	9.3	6.9	6.1	5.7	5.5	4.0	5.6	6.0	3.9
통학	12.9	9.6	12.2	7.5	9.2	6.6	19.6	8.4	7.4	8.1
기타	8.1	8.3	12.6	6.3	8.6	5.2	7.8	9.6	9.2	5.8

주: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에 따르면 많은 구직포기 청년층이 ①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③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지목된 유형의 구직포기 사유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사

3) 이러한 의미에서 흔히들 ‘백수(백조)’ 라고 불리어진다.

회구조적 요인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의 부족과 전공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흔히 회자되는 일자리 매칭의 문제가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⁴⁾ 청년층이 취업난에 구직마저 포기하는 이유를 가져오게 된 사회경제적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볼 때 일자리 수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일자리가 결정되어진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찾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낮아졌으며, 둘째,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⁵⁾ 우선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고도성장기와 비교할 때 성장률이 낮아졌으며, 성장률이 낮아진 결과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줄어든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과거 일자리에 비해 최근의 일자리가 컴퓨터 사용 등 고숙련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세대의 청년층이 특별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한편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소위 ‘신이 내린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청년층이 취업 ‘재수’, ‘삼수’를 불사하는 현실을 볼 때 일견 타당성이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잡는 것이 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층이 오로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면 아예 취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층 취업난을 노동수요 측면에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찾고 있는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고학력 청년층이 양산되었으며, 일자리 수요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공급은 결국 미취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⁶⁾ 실제 공급의 증가로 청년층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적어도 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에 비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

4) 일자리 매칭의 문제 또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추후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5) 청년층 미취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연구로서는 이병희(2003)와 정봉근(2004) 등이 있다.

6) 이러한 입장의 연구로서는 원종학 외(2005)와 김주섭(2005)를 들 수 있다.

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의 문제가 고학력 청년층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는 점에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일자리에서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일견
쉽고도 어렵게 들리는 미스매치 현상이란 매우 단순한 경제적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지역에 신발 한 켤레를 팔고 받은 값으로 쌀 한 포대를 사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지역에 쌀 한 포대를 팔고 신발 한 켤레를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두 지역을 묶어서 볼 때 신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르면 이 경제에 있어
신발과 쌀은 아무 문제없이 거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가령 신발을 팔고
쌀을 사려는 사람이 신발을 사고 쌀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경
우 비록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더라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
로가 서로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서로 만날 때까지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청년층 취업난 현상에 비추어
보면 많은 미취업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그러한 직장이 어디
에 있는지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청년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사람들
구하고 있으나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일자리(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미스매치에 입각한 청년층 미취업 현상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목격되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 많
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왔듯이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고충을 호소하는 고
용주와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낙담하는 청년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칭 이론에 따르면 일자리의 매칭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일자리 매칭이 일어
나지 않게 된다. 앞의 예에서 신발 한 켤레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신발값으로 쌀 100
포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쌀을 한 포대 팔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국 거래가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이 원
하는 일자리가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장을 얻으려는 청년층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자리 매칭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두 가지 원인
을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청년층의 눈높이 문제이며, 두 번째는 구인과 구직을 연
결시켜 주는 직업알선의 문제이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앞의 두 가지 원인 중 어떤 것

에 의해 일어나는가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눈높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층 미취업 현상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는 임금, 안정성, 복리후생 수준, 근로시간, 직장문화, 직장위치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분석을 할 때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원하는 직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경제학에서는 금전적 보상(급여는 임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⁷⁾ 이 때 청년층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금전적 보상수준을 전문적인 용어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라고 한다. 결국 자신의 의중임금과 제안 받은 일자리의 임금(offered wage)을 비교하여 취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령 의중(원하는)임금이 제안된 임금보다 높으면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⁸⁾

중요한 점은 의중임금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수준이 현실적인가에 있다. 예를 들어, 스타급 프로스포츠 선수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매우 높은 의중임금을 갖게 되는데, 종종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한 프로구단에서 이를 받아들여 계약체결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높은 의중임금이 운동선수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만약 3류 운동선수가 스타급 선수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일 팀이나 구단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결국 3류 운동선수는 스타급 선수의 임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자기를 받아줄 팀이나 구단을 찾아보든지(결국 못 찾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아니면 자신의 주제에 맞게 임금수준을 대폭 낮추어, 현실적으로 자신을 받아들 팀이나 구단을 물색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만약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의중임금 때문이라면, 사실상 정책으로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의 선택이 중요시 되는 시장경제 하에서 스스로 내린 잘못된 판단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바라건 데, 계속되는 미취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빨리 인식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7)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다. 가령 설문조사를 통하여 쾌적한 직장문화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는가 물어봄으로써 화폐화 할 수 있다면, 이를 임금에 추가하여 전체 금전적 보상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8) 가령 월 300만원(의중임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월 100만원(제안된 임금)짜리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몇몇 사실을 조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미취업 청년층의 의중임금이 높은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설립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대학수가 늘어났으며, 상당수의 청년층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게 되었다. 학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 사회를 이루었으나, 그 많은 대학 졸업생이 과연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결국 고학력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준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구생활양식이 미취업 청년층의 의중임금을 높게 하었을 수도 있다. 외국의 청년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자기 스스로 빌려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졸업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해 웬만한 직장이라도 빨리 취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에 의존하고, 졸업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우리의 생활패턴 하에서는 큰 비용부담 없이 원하는 직장을 목표로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연하면 부모의 지극한 자녀지원이 그들의 눈을 높게 하였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층의 눈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을 개연성은 인정하더라도 그럼 ‘과연 그러한가?’는 별개의 흥미로운 분석대상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개념인 ‘원하는’ 임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현실과 비교하는 방법은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론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통해 실제 입증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일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행된 연구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미취업 청년층의 눈높이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있다.⁹⁾

〈표 3〉 의중임금과 미취업 시 비용의 비교

(단위: 만원)

구분	남성			여성		
	고졸 이하	고졸이상 대졸미만	대졸 이상	고졸 이하	고졸이상 대졸미만	대졸 이상
의중임금	72.4	87.7	92.2	58.4	72.2	83.6
미취업 시 비용	68.5	80.3	84.0	55.3	68.7	73.5
관측수	241	98	107	477	208	202

주: 2001년 물가수준 기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2001.

9) 이론적 논의와 상세한 자료 분석 방법은 김용성의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2008-09)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본고의 목적 상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표 3>은 학력별·성별 미취업 청년층이 의중(원하는) 임금수준과 이들이 미취업 시에 어느 정도 비용(가상적인)을 부담해야 되는가를 비교하고 있다.¹⁰⁾ 표에서 보듯이 의중임금과 미취업 시 비용이 대략 10만원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 제약과 통계기법상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를 생각한다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3>이 의미하는 바는 미취업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 드는 비용만 충당해줄 수 있는 일자리 정도를 원한다는 것으로서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들이 현실과 동 떨어져 지나친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부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다수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과도한 의중임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직업알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단기 또는 장기 청년층 구직자의 구직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 따르면 구직방법으로서 대중매체(신문·잡지·인터넷 등) 활용이 높으며, 뒤를 이어 사적 네트워크(친구·친지·지인의 소개)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구직자의 경우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주로 인터넷에 친숙한 성장배경의 결과로 보인다.

<표 4> 단기(3~6개월) 구직자의 구직방법 분포

(단위: %)

구직방법	2006		2007	
	전체	청년층	전체	청년층
본인이나 가족의 사업 준비	9.3	5.4	5.6	1.5
신문·잡지·인터넷 등의 구인정보	50.3	69.7	54.0	65.4
학교·학원 추천	2.5	4.5	3.4	8.6
사업체 문의 또는 방문	4.2	3.1	4.7	5.3
친구·친지·지인의 소개	23.3	8.5	22.4	9.9
민간직업알선기관	4.7	2.6	3.4	2.5
공공직업알선기관	3.3	1.1	4.5	2.9
취직시험 응시	2.0	5.1	1.6	3.8
기타	0.5	—	0.4	—
계	100	100	100	100

자료: 노동부 인력실태조사 2006, 2007.

10) 미취업시 비용이란 직접적인 생활비(잡비) 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드는 주거비, 식비 등도 포함하였다. 물론 부모님과 동거 시 자녀가 주거비나 식비를 직접 부모님께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를 기회비용에 포착한다.

청년층의 인터넷 구직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참조).¹¹⁾ 흥미로운 사실은 노동부의 고용안정 취업정보망의 사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시스템으로 워크넷(Worknet)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 미취업 구직 청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인터넷 채용사이트의 활용도

(단위: %)

구분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100	100	100	100
사실 온라인 정보업체	51.1	51.3	20.3	26.9
모교의 취업정보 사이트	20.4	11.5	16.5	6.7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7.5	11.5	6.3	5.1
신문사 취업관련 사이트	3.2	6.3	9.6	8.6
기타	5.4	5.9	8.5	4.9
해당사항 없음	12.4	13.4	38.8	47.9

출처: 정인수김기민(2005)의 <표 4-8> 재인용.

본고에서는 미취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자료를 통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이 힘써야 할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현재 청년층 고용상황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노동수요 및 공급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이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1)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인수김기민(2005)을 참조.

참고문헌

김용성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08-09, 한국개발연구원, 2008

김주섭,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5(2) 한국노동연구원, 20005.

원종학·김종면·김형준,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보고서 2003-01,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정봉근, 『청년실업을 대비한 교육정책』, 2004.

정인수 · 김기민,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5-06, 한국노동연구원, 2005.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고 복 현 | 대전지방노동청 지역협력팀장

2008년도 하반기 국제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난해 한 때 실업자수가 96만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4.0%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나 노·사·정의 양보와 공동노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고용시장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현재 실업자 수가 83만명,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경제의 회복과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지 않아 경제위기의 여파가 집중되었던 청년, 근로빈곤층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올 한해 최상위 국정과제를 일자리로 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정책목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라 여기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정착과 고령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방침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2010년도 노동정책을 마련하였다.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1.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1)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① 청년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일자리 중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워크넷을 중심으로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채용 인재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 우수 중소기업 6만개의 DB를 확보해 고용지원센터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예정이다.

또한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취업준비생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150개소에 취업지원관이 활동할 예정이며, 인사 노무 경력자의 파트타임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만8천명의 재학생이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양성되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고, 졸업생은 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7만 9천명 정도가 맞춤형교육의 혜택을 받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정보를 통합 제

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각 정부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직 창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인턴경험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 내에 창직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문화, 예술분야 산업의 훈련수요와 결합하고, 현장에서 인턴경험과 훈련을 쌓게 할 것이다.

②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강화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작년에 처음 도입된 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취업성공 패키지란, 저소득층에 대해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작년 1만명에서 올해는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취업주치의(가칭)”를 지정, 진단부터 취업 시까지 일대일 취업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실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할 때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실업급여 포함) 가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사업종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대신 총 참여기간 및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종료 후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미용이나 도배, 자동차 정비 등 기술습득 및 취업이 용이한 직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NGO 등과 연계하여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를 디딤돌 삼아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성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업개발비 185억원을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유도한다. 또한 대기업을 통해 1사 1사회적기업 확산을 유도하고 회계, 법률, 노무 분야에서 전문성 기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모델을 적극 발굴 적용하는데, 공공부문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직종에는 콜센터 등 민원상담업무, 휴일 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직종이 결정되면 파트타임 재택근무 적합 직무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민간부문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업체에는 컨설팅 및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출산 육아기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협조에 따라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형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보육수요가 높은 기관에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아동 정원 일부를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을 추진한다.

④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 지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712만 명으로 앞으로 9년 내에 집중퇴직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201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상향되고 2018년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 등을 감안해 정년연장 등 노·사·민·정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또 퇴직 후 원활하게 다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 일자리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령자 인재은행을 취업지원프로그램 토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16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언론사 등과 협력하여 DB를 구축, 원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매칭한 뒤 해당 기업체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원해준다.

⑤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취약근로자를 위한 제도 역시 개선된다.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처럼 기간제한으

로 실직이 많은 직종은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고, 기간제 근로자 본인의 차별시정 신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 검토하고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해 진폐 보상체계 개편 완료, 석면관련 질환 인정기준 및 장애평가기준 개선 등 신속 공정한 산재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평가 시 중증장애인 1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2)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

①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유도한다. 주기적으로 시·군·구별 일자리를 조사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성과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재편해 지역고용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강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② 민간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일자리 중개서비스 기관을 대폭 정비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표준화 및 대형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사용(3년),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을 강화한다.

③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 구축

현재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은 모두 234개로 노동부는 이들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 효과성을 감안하여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 사업별로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고용창출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대통령이 월 1회 이상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 운영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산업, 노동, 교육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 고용 창출력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을 세운다.

3) 미래 대비 및 국격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입법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매뉴얼 보급, 현장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대내외 홍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사·정 이행 점검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노사문화 파업관행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새로운 제도시행을 둘러싼 현장에서의 과도기적 갈등에 대비하여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장 불법점거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영세기업 노무관리 중점 지원, 현장과 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배분 중심”에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갈등 기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 영세기업 “현장 노무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장과 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한다.

②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또한 사업장 컨설팅, 임금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공급제 중심에서 직무 성과급제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사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제조 건설업 등 3천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 81만개소에 780억원 규모의 패키지 사업(교육, 재정, 기술)을 지원한다. 노사단체와 공동으로 “1사 1안전 지키기 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③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녹색관련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예측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폴리텍대학의 학과를 녹색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 개편하고 우선 선정 직종훈련을 미래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지원방식을 이에 맞도록 재설계한다. 중소기업의 현장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펼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업훈련 중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체훈련 위주에서 현장훈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생활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2. 주요 고용지원사업

1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① 사업목적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②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 수 증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생활필수 시설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포함) 목욕시설(샤워시설 포함)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기숙사 탁아시설(탁아관련 비품 포함)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도서실(도서 제외)
	체력단련시설(족구장 등 옥외시설 및 체력단련기구 포함) 통근차량(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교육관련 장비 포함)	

③ 지원수준

- 투자금액과 근로자수 증가를 확인하여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합산하여 지원(증가된 인원이 있어야만 지원)

④ 지급절차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제출(사업주) → 계획승인(고용지원센터) → 고용환경 개선 및 완료신고(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 계획서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②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
 -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 ** 대기업이 전문인력 인건비를 40%이상 부담할 것

③ 지원제외

- 고용(사용)전 3개월, 고용(사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④ 지원수준 및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 매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 고용 후 1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한도

⑤ 지급절차

- 전문인력 고용 또는 사용(사업주) → 분기별로 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사업목적

-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 및 유희인력 낭비 방지

지원수준

구 분	실업기간	지원수준
장애인	3개월	최초 6개월 72만원, 이후 6개월 36만원
고령자	3개월	최초 6개월 36만원, 이후 6개월 18만원
청년	3개월	최초 6개월 54만원, 이후 6개월 36만원
장기구직자	6개월	최초 6개월 36만원, 이후 6개월 18만원

* '10.1.1. 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환원(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 월18~72만원에서 월15~60만원으로 변경)

② 지원제외

- 사업주가 고용전 3개월, 고용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지급절차

- 구인·구직등록(사업주, 구직자) → 알선(고용지원센터) → 지원대상자 채용(사업주) → 3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

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도모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다수고용장려금	고용기간 1년 이상인 55세 이상(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	지원기준을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정년연장장려금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1인당 월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1인당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②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

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보장

② 지원요건

<사업장 요건>

- 최소 만 56세 이상까지 고용 보장
- 일정 연령·근속시점·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도입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협·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 확인 가능할 것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만 54세 이상 근로자
 - *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1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일 것
 - * 단,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징계처분,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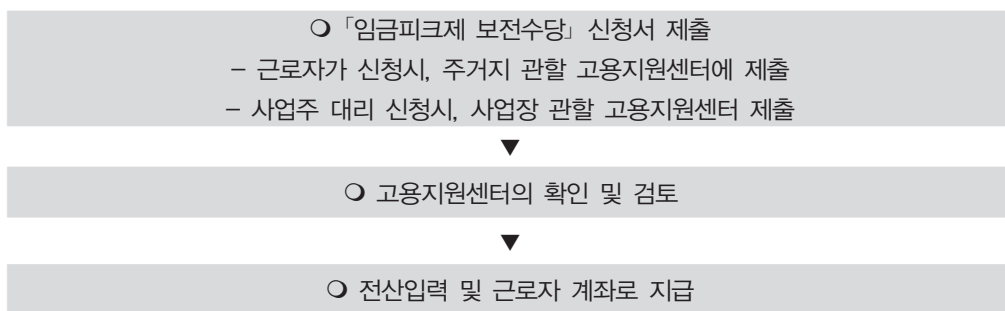
③ 지원수준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50% 지급
- 연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로 보전수당과 당해 임금이 연 5,760만원(분기 임금의 합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 만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지원기간(예시)

사업장	고용보장 연령	임금조정 시기	지원기간
A	60세	54세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전(6년)
B	58세	56세	56세 도달 이후~58세 도달 전(2년)
C	62세	52세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전(6년)
D	65세	60세	60세 도달 이후~65세 도달 전(5년)

④ 지급절차



⑤ 신청서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 신청시)
 -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1부
 -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고용보장연령, 임금삭감 시점·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연단위 신청시 피크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고문헌

노동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 2010

대전지방노동청, 2010년 주요 노동정책,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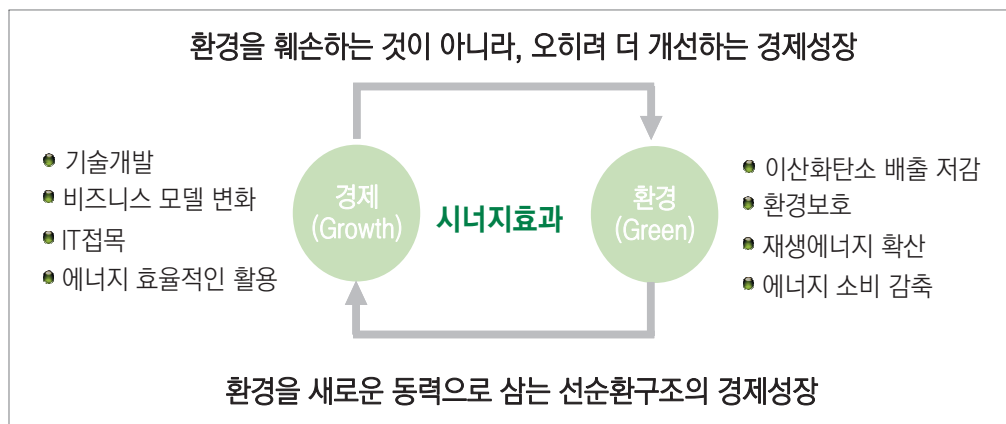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일자리 창출

신 동 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세계경제의 신조류 및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대외적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인 ‘녹색성장(Green Growth)’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녹색 성장은 기후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개념이기 때문이다.

Greenomics 개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녹색성장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임과 동시에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 세계경제의 조류변화 및 국가성장전략의 전환은 이제 지역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여건변화로 인식되어짐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녹색경제(Greenomics)의 등장으로 향후 20~30년 내 전세계적으로 수천만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전망(UNEP, ILO)으로, 이는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녹색일자리(Green Job)가 창출됨을 의미한다.¹⁾ 이와 관련하여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는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단위에서 노동수요를 확대시키는 고용정책의 실현을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고용정책의 핵심은 기존 존재하는 기업이 고용량을 증대시키는 것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충남도는 정부의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정책수단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녹색성장사업을 관련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국내외 녹색정책 및 녹색 일자리 동향

1) 해외 주요국 동향



(프랑스)

2007년 10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2020년까지 4,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50만개 일 자리를 창출하는 ‘녹색뉴딜(Ecological New Deal)’ 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녹색뉴딜 발표 이후 녹색뉴딜의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1월 환경보

1) 녹색일자리(Green Job)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녹색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직종으로 그린 에너지 및 친환경산업관련 일자리를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총칭한다. 구체적으로 소산업에서 친환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일자리와 녹색성장과정에서 유발되는 친환경발전관련 일자리를 포함한다.

호법안(National Engagement for the Environment)을 입안하였는데, 동 법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목표로 TGV 2,000km 및 파리외곽 전철 1,500km 신설, 내륙수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존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녹색건설사업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폐기물 감축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인 일본은 2007년 이후 ‘저탄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후쿠다 비전’ (2008년 6월)에서 일본은 CO₂를 2020년까지 현재 대비 14%를 감축하고, 이후 2050년까지 60~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아소 다로 총리가 “2015년까지 녹색산업 시장규모를 100조 엔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80만개 창출 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무이자 융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차세대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장려를 통해서 신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경제산업성 산하조직인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자국 주도의 기후변화협약인 ‘아·태 파트너십(Asia Pacific Partnership, APP)’을 구성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여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EU 및 일본에게서 탄소시장 및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친환경 SOC 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8,25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2009~18년 중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의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상용화에 대한 지원규모를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확대하고, ‘청정기술개발 벤처캐피탈 기금’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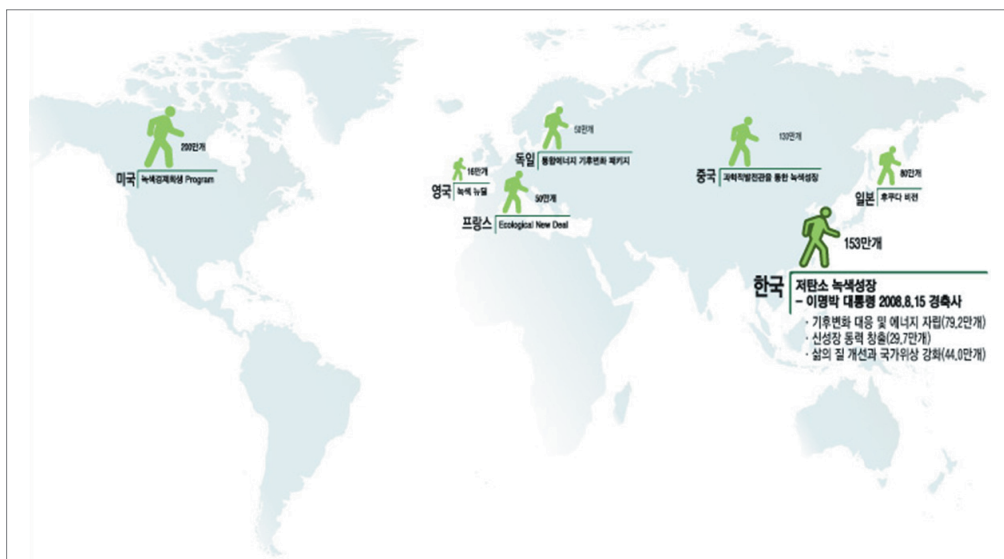


(EU)

EU는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력한 환경규제와 관련법을 제정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아울러 EU 공동 기술개발 관련 ‘신재생 에너지법’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법에 근거한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정·재생에너지 관련 R&D 확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EU 회원국 중 영국은 2009년 1월 고든 브라운 총리가 2020년까지 10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16만개 창출하겠다는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SOC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은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법’을 기반으로 10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목표량을 제시하고, FIT(Feed-in-Tariff)를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주요국의 녹색 일자리 창출 전망



2) 국내 동향

정부는 국가발전의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9조에 의거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국가전략의 중기실행계획으로 '09~'13기간 중 연도별 투자계획과 수행주체 등 세부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 기간 중 녹색성장을 위해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관련 일자리는 총 152.9만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부문에 56.9조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79.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며, 둘째, 신성장 동력 창출부문에 28.6조원이 투입되어 29.7만개,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를 위해 27.9조원이 투입되어 4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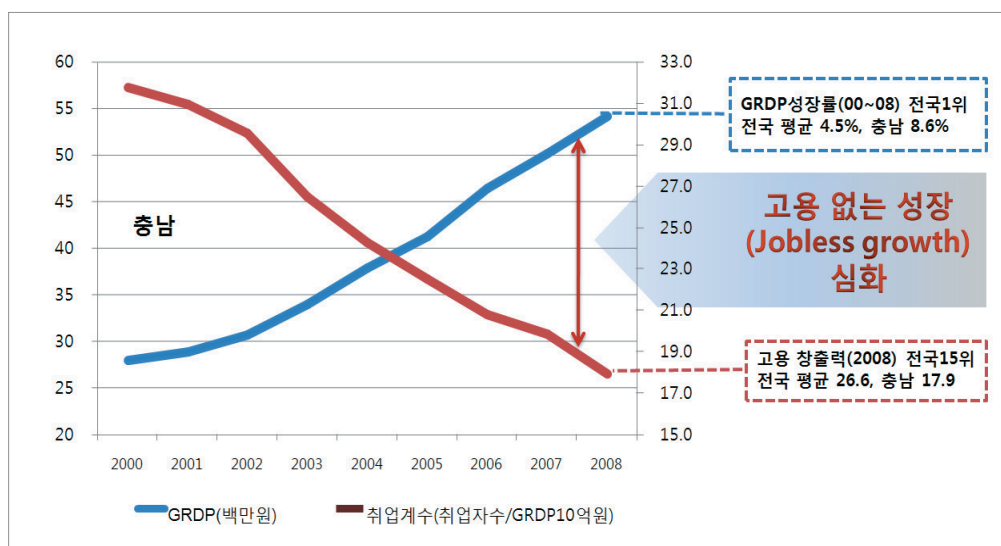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 온실가스 검·인증전문가 · 녹색컨설턴트 전문인력	7.8만명
	2. 탈석유·에너지자립	· 폐자원 에너지화 인력 · 원자력 및 자원개발 전문인력	20.8만명
	3. 기후변화역량강화	· 기후변화적응 전문인력 · 물산업 맞춤형 인력	50.6만명
신성장동력 창출	4. 녹색기술·산업개발	·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상용화· 제조, 설비·건설인력	9.4만명
	5. 기존산업 녹색화· 신규녹색산업 육성	· 녹색수준진단 컨설턴트 · 중소기업 녹색성장 전담인력	4.9만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고부가·첨단산업전문인력 · 의료·교육컨텐츠 개발인력	12.7만명
	7. 녹색경제기반 조성	· 탄소배출권거래·건설팅지원인력 · 녹색펀드운영 및 투자심사인력	2.7만명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녹색건축물 평가·인증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40.0만명
	9. 생활의 녹색혁명	· 녹색성장전문교육인력 · 생태관광전문가이드 등	3.1만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해외봉사단(월드프렌즈 코리아 녹색봉사단)	0.9만명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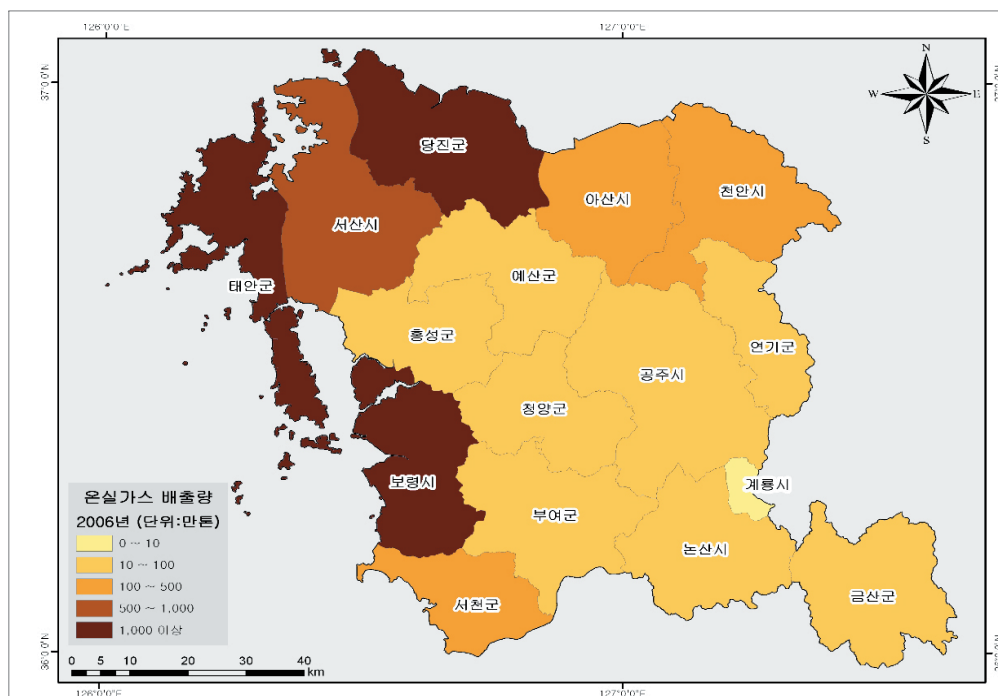
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

충남경제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 지역경제는 '00~'08년 기간 중 연평균 9.0%씩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총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0%에서 2008년 49.8%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제조업은 충남의 경제성장을 '촉발(igniting)'시키는데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고도성장을 '지속(sustaining)'하게 하였다. 다만,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계수(취업자수/GRDP 10억)가 2000년 28.8명에서 2008년 15.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전국 취업계수의 평균이 23.9명(2008)임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정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충남지역은 녹색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질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지역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지역이 그동안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오염 없는 그린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증가와 무관치 않으며,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 수단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충남 CO₂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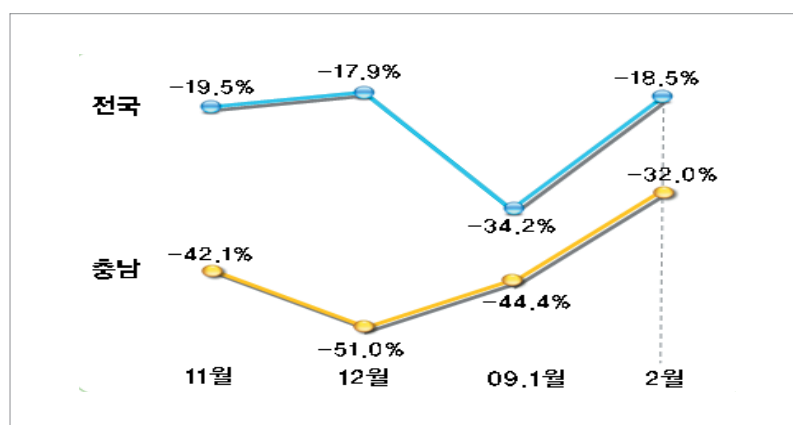
- 1인당 배출량 15.21탄소톤(TC)
 - 전국평균 3.34탄소톤의 4.6배(전국 1위)
- 소득대비 배출량 0.51탄소톤/백만원
 - 전국평균 0.19탄소톤/백만원의 2.7배(전국 2위)
- 원인
 -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충남은 전력공급기지 역할 수행
 - 화력발전소 4개소(보령, 서천, 태안, 당진)의 CO₂ 배출량이 도내 전체 배출량의 78~80% 차지

③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충남의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드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성장을 지속하는 일은 성장을 촉발시키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World Bank 2006, Rodrik 2005, KDI 2008).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경기의 침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충남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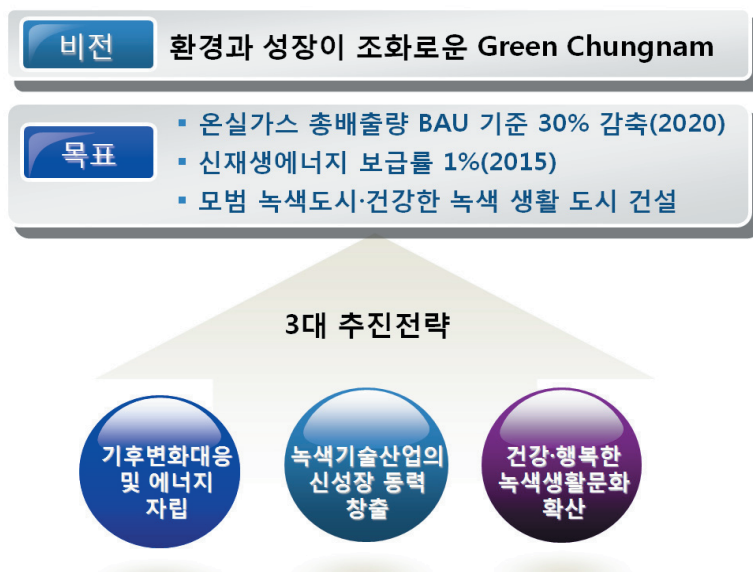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이후 충남의 수출 감소추세는 전국평균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0월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동월 16.8% 감소한 이후, 동년 11월과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1%, 51.0%나 감소하였다. 이는 충남의 지역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부문의 신성장 동력발굴은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충남지역의 지속성장(sustained growth)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요인이다.

금융위기 당시 수출 감소추이



2) 충남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사업

① 충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충남도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 충남’ 구현을 위해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둘째,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총 1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1조 5,8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녹색성장 추진계획 사업비

(단위 : 십억원, %)

합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자립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문화 확산
11,586.1 (100.0)	4,857.4 (40.0)	2,854.2 (23.5)	4,438.1 (36.5)

② 녹색 일자리 창출 효과

충청남도 녹색성장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리적 개발 또는 개별산업에 8조 5,266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다.²⁾ 구체적으로 '09~'13년간 약 11조 6,41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 5,17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만 7,447명

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1만3,489명으로 '09년 1/4~3/4분기 평균 실업자의 45.0%에 달하는 수준이다.

녹색성장 사업추진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계	11조6,417억 원	4조5,177억 원	6만7,447명
연평균	2조3,283억 원 (GRDP대비 3.71% 수준)	9,035억 원 (GRDP대비 1.6% 수준)	1만3,489명 (실업자수 대비 45.0%수준)

주 : 충남녹색성장추진5개년계획에 포함된 전체사업에 대한 효과임.

4.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의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삶의 양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부문이 수립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계획수립에 반영되어질 것이다. 향후, 산업, 도시, 교통, 환경, 기타(농어촌, 문화, 교육, 의식 등)분야에서 다양한 녹색사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녹색일자리는 파생적으로 창출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충남의 분야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산업 · 경제

산업 · 경제부문에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를 지향하고, 동시에 주력산업의 ‘녹색화(Greening)’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충남의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부문의 탄소저감과 녹색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2) 2009~2013년 기간 중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1조 5,861억 원이나, 교육 및 실천운동,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은 파급효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권역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집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태양광소재), 서해안권(태양광, 풍력), 내륙권(농축산 바이오, 지열), 금강권(태양광, 소수력) 등 도내 각 권역별로 특화된 그린에너지 기술융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 보급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Green Home, Green Farm,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확대 사업, 융·복합 보급사업 등을 적극 수용하여 관련 기업유치 및 시장창출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산업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치사슬 단계별로 녹색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산업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실용화·상용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그린 IT 융합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신에너지설비 인증제도 실시와 관련 기술의 표준화·규격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충남의 주력산업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녹색혁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및 친환경 공정혁신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은 대체에너지, 부품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로 연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선도사업인 New IT 부품소재 분야를 특화시켜 국제협력강화,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통합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도시 · 교통

도시·교통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소비형의 친환경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즉,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및 교통, 기반시설 등 물리적 계획 시 순환적 대사작용과 에너지 및 생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과 자연생태계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를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에너지 시범단지(에코빌리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공청사 등 각종 건축물에 적용하고, 연료전지발전 및 RDF(생활쓰레기 고체연료), 소화

합병가스(음식물 쓰레기, 하수슬러지 퇴비화)를 집단에너지 시설과 연계활용 해야 한다. 또한 아산만권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세종시 등도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도시를 지향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형 친환경적 도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즉, 기존 도시에는 탄소배출 저감형 주택 및 건물을 보급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그린홈 으뜸 아파트’시책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경소형화 등 신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대형 차량중심의 자동차 문화를 개선하고 석유의존형 교통수단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중심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석유의존형 차량을 Green Car(친환경 자동차)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한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경관도로를 건설하고, 도로의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Green Road사업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의 주요교통 수단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3) 환경

환경부문에서는 ‘오염원 제로(Zero) 충남’ 과 ‘충남 생태환경 복원’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즉, 충남 도내 산재한 다양한 오염원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청정 충남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환경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선적으로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가 자발적으로 CO₂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시설과 충남도간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배출 CO₂ 원단위를 5% 이내로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해야 한다. 즉, 소각시설 여열회수 사업, 하수처리장 바이오 가스 플랜트 설치, 하수슬러지 자원화, 농가형 축산분뇨 메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등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도내 읍·면·동 단위로 수질, 대기 등 오염원별로 오염원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오염원 제로(Zero) 충남’을 건설해야 한다. 넷째, 폐광산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해 토양오염방지 및 수생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도내 산재된 폐금속 광산, 폐석탄 광산, 폐석면 광산 등 269개소에 대한 광해방지를 위해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석, 광미, 표토 유실방지사업을 시행하고, 갯내수 처리를 위한 소택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물리탐사를 병행한다. 다섯째, 지하수 폐공을 정비·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재활용 하기위해 도내 방치·은폐된 ‘폐공찾기 운동’과 더불어 원상복구사업을 지속해야한다. 여섯째, ‘금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수질 농도가 높은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의 저감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강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읍·면 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조성과 농업·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녹색신성장타운(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농수산 부문의 녹색기술 개발 및 Test bed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출원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녹색성장에 대한 도민의 인식확산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범 도민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추진본부’ 및 ‘기후변화 대응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태안종합에너지단지,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기념관, 그리고 서천국립생태원 등을 통해 향후 도민의 생태문화교육 및 생태문화관광의 장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과 그린 에너지 운동, 그리고 ‘클린 충남(Clean Chungnam)만들기’ 운동(3개 분야, 20개 실천과제)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생활 속 실천문화로 자리 잡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녹색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가정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녹색 먹거리를 개발하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녹색 슬로우 푸드마을’을 육성해야 한다.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경기

-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88%p 상승
- '09년 5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국면 지속

산업활동

- 1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1% 증가, 제품출하지수는 전월대비 2.2%로 증가세 지속
- TV용 LCD, 노트북용 LCD, 승용차 등의 생산 및 출하 증가

소비 및 물가

- 1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0.3% 상승,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0.5% 상승

수출입

- 1월 충남의 수출은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85.3% 큰 폭 상승하였지만 전월에 비해 6.2% 감소
-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47.9% 증가, 전월대비 8.8% 감소
- 1월 무역수지 18억 54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

고용

- 1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취업자 89만명
- 1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 59.7% 증가, 실업률 4.4%

건설 및 부동산

- 건축허가면적(-65.4%) 및 착공면적(-31.9%) 전월대비 감소세 기록
-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 둔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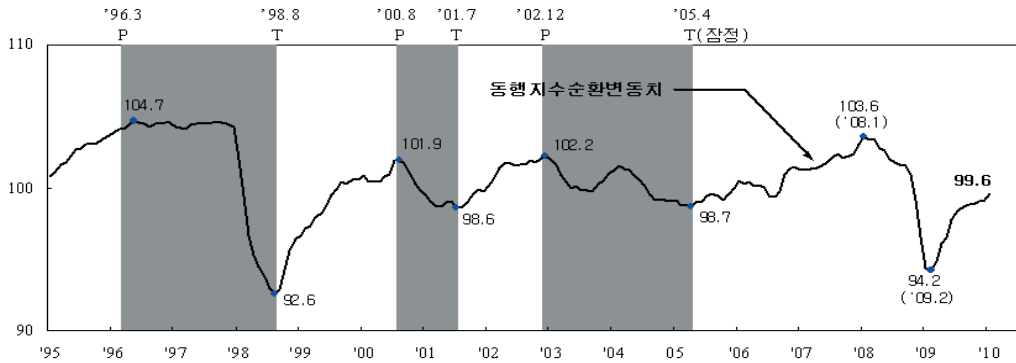
1. 경기

[전국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 7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
 - * '09.3월부터 11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09.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	'10.1월 ^p
○ 동행종합지수	121.0	122.3	123.2	123.9	124.5	125.2	125.9	127.0
· 전월비(%)	1.7	1.1	0.7	0.6	0.5	0.6	0.6	0.9
○ 순환변동치	97.8	98.4	98.7	98.9	98.9	99.1	99.1	99.6
· 전월차(%p)	1.3	0.6	0.3	0.2	0.0	0.2	0.0	0.5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5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3%p 하락**
 - * '09.1월부터 12개월 연속 상승 후, 처음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09.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o	12월 ^o	'10.1월 ^p
○ 선행종합지수	120.3	122.1	123.2	123.9	124.7	126.1	127.0	127.4
· 전월비(%)	2.3	1.5	0.9	0.6	0.6	1.1	0.7	0.3
○ 전년동월비	5.5	7.6	8.8	9.6	10.3	11.3	11.6	11.3
· 전월차(%p)	2.8	2.1	1.2	0.8	0.7	1.0	0.3	-0.3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0. 1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127.7로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및 수출액 등의 모든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1.07%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88%p 상승한 102.0을 나타내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 2009년 5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동행종합지수 추이

구 분	'09.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0.1월 ^p
○ 동행종합지수	119.3	120.9	122.1	123.6	124.7	125.7	126.3	127.7
· 전월비(%)	1.61	1.36	0.94	1.22	0.89	0.81	0.51	1.07
○ 순환 변동치	96.7	97.8	98.5	99.5	100.2	100.8	101.1	102.0
· 전월차(%p)	1.35	1.12	0.73	1.01	0.68	0.61	0.32	0.88

주) p는 잠정치임.

- 1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지표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0.03%), 산업생산지수(1.33%), 대형소매점판매지수(2.46%), 전력사용량(2.66%) 증가, 수출액(2.38%), 수입액(3.3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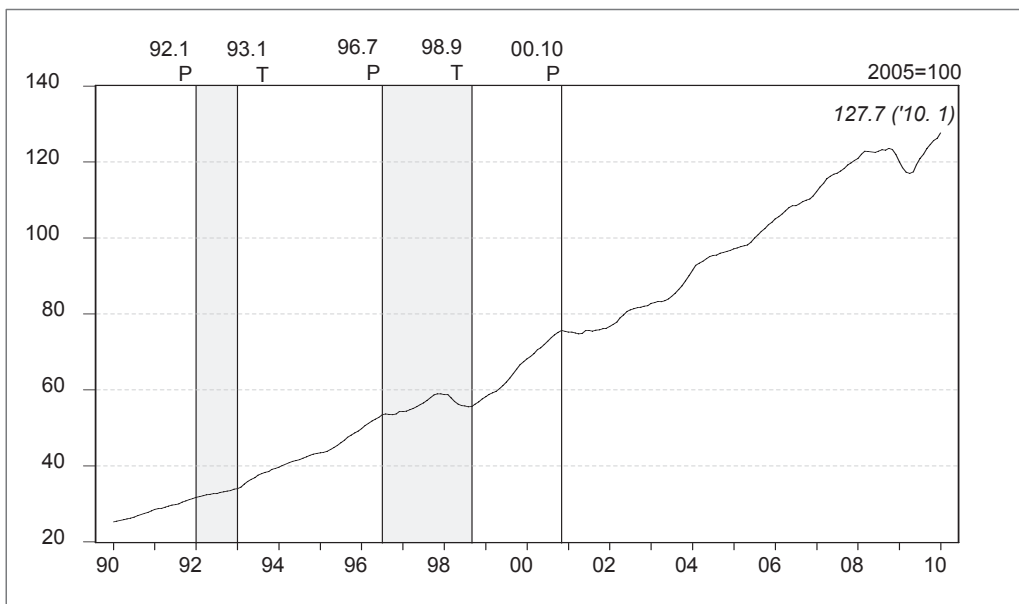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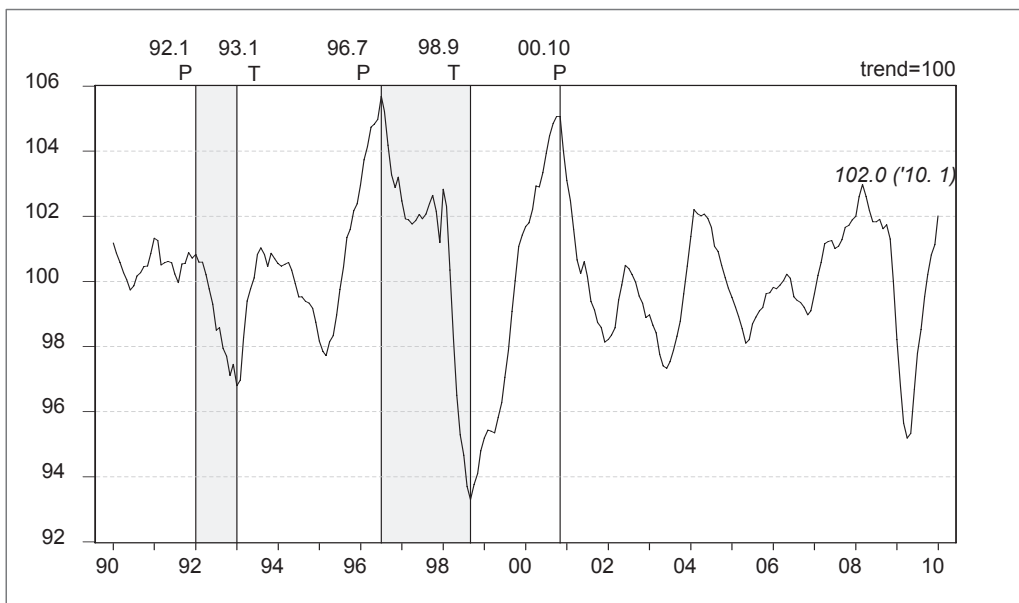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09.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0.1월 ^p
비농가취업자수	0.66	-0.34	0.09	0.60	0.34	-0.07	-0.65	0.03
산업생산지수	7.12	6.83	5.41	4.54	3.15	2.03	1.71	1.3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89	1.36	0.09	0.76	-0.24	1.42	0.64	2.46
전력사용량	1.88	1.28	1.23	1.44	1.38	1.81	1.87	2.66
수출액(실질)	5.68	5.60	3.98	2.63	3.08	3.06	3.71	2.38
수입액(실질)	-0.80	1.13	-1.43	1.15	0.89	1.10	0.54	3.30

주)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0. 3월 대전·충남지역 업체들의 업황은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3월 업황전망 BSI는 제조업(2월 91→3월 96)과 비제조업(2월 88→3월 90)모두 전월보다 상승
- 자금사정도 2월중에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 모두 전월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3	87	91	89	91	91	96(101)	+5(+9)
매출	90	96	101	98	103	103	109	+6
생산	92	98	103	100	104	106	110	+4
신규수주	90	97	96	94	97	96	104	+8
채산성	86	87	91	89	93	94	93	-1
제품재고	102	105	104	105	104	103	99	-4
인력사정	95	98	90	91	97	94	90	-4
자금사정	93	95	94	96	97	95	99	+4
외부자금수요	112	112	113	112	109	113	110	-3
자금조달사정	92	96	97	101	100	96	100	+4

주)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1	81	78	79	84	88	90(91)	+2(+4)
매출	88	86	90	93	95	96	94(103)	-2(+3)
채산성	87	87	86	88	93	92	95(95)	+3(+2)
인력사정	93	89	88	85	88	91	90(93)	-1(+1)
자금사정	91	89	93	94	95	90	92	+2
외부자금수요	112	114	109	106	107	111	107	-4
자금조달사정	87	90	97	97	95	95	97	+2

주)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 2010. 1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72.6% 증가
 - 석유정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의 증가에 기인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월 ^p
산업생산지수	120.1	195.4	215.8	205.9	204.6	211.9	207.3
전년동월비	-21.6	25.3	37.0	20.8	37.2	69.9	72.6
전월비	7.4	3.7	2.9	-2.6	-1.8	2.8	3.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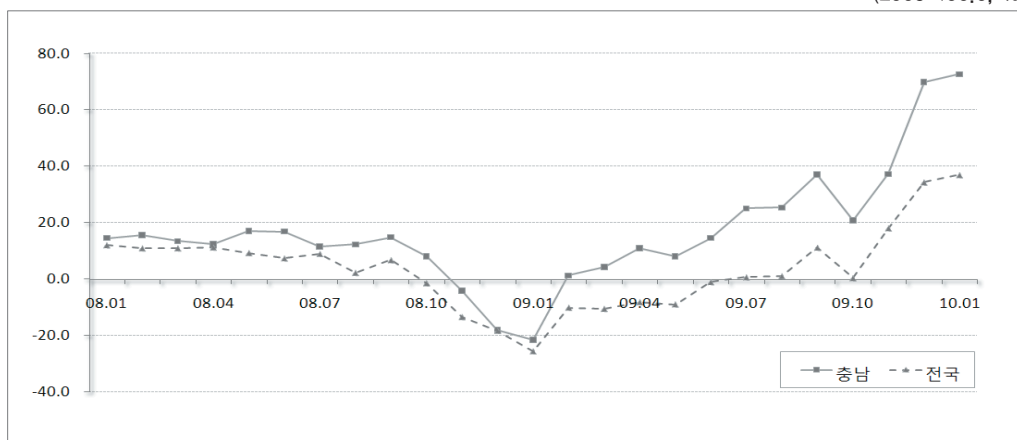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36.1) : TV용LCD,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등
- 자동차(+109.0) :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등
- 비금속광물제품(+65.5) : 액정모니터유리, 차량용안전유리, 위생용도기제품 등
- 제1차금속(+113.3)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열연대강, 석도강판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21.3) : 휘발유, 경유, 등유, 부탄가스 등
- 의료정밀및광학(-29.4) : 광선치료기, 안경렌즈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0. 1월 충남의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확대(+65.4%) 및 전월대비 2.2% 증가
 - 석유정제품, 의약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 금속,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월 ^P
출하지수	112.7	174.3	196.0	188.8	188.0	194.7	186.4
전년동월비	-24.1	18.1	31.0	19.1	34.9	57.1	65.4
전월비	1.3	2.4	5.3	-2.7	-1.5	3.2	2.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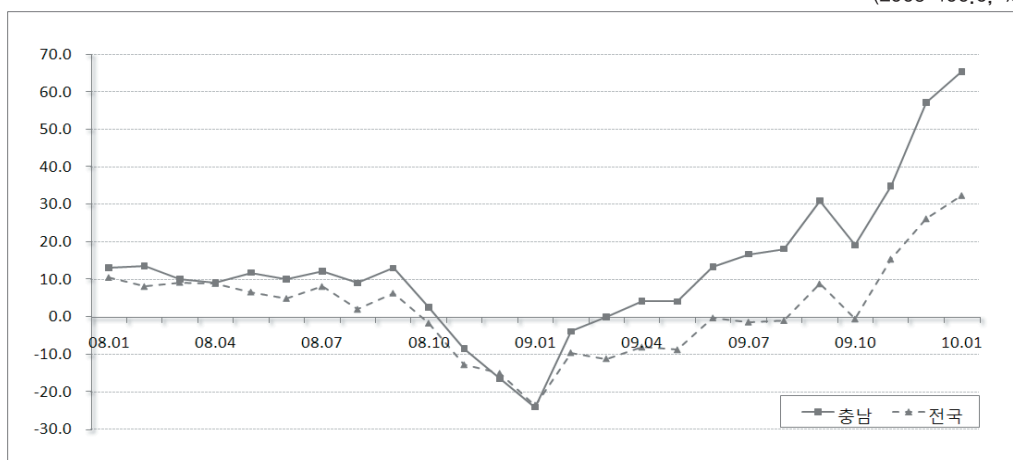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40.2) : TV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등
- 자동차(+107.8) :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대형승용차 등
- 제1차금속(+97.1) : 아연도강판, 열연대강, 냉연강대, 강관 등
- 기계및장비(+38.9) : 감속기, 금형, 차량용에어컨, 반도체공정장비 등

[감소업종]

- 석유정제품(-6.7) : 휘발유, 경유, 부탄가스, 제트유 등
- 의약품(-13.7) : 의약품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0. 1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7.7%)하였고, 전월대비 증가(+0.6%)

- 이는 영상음향 및 통신,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음료, 가구, 제조업,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한 데에 기인

(2005=100.0, %)

구분	2009	2009년					2010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1월 ^p
재고지수	136.5	136.7	128.8	124.8	120.6	121.2	126.0
전년동월비	6.1	8.7	2.4	-10.1	-17.3	-9.8	-7.7
전월비	0.8	8.9	-1.8	-5.9	-2.2	0.3	0.6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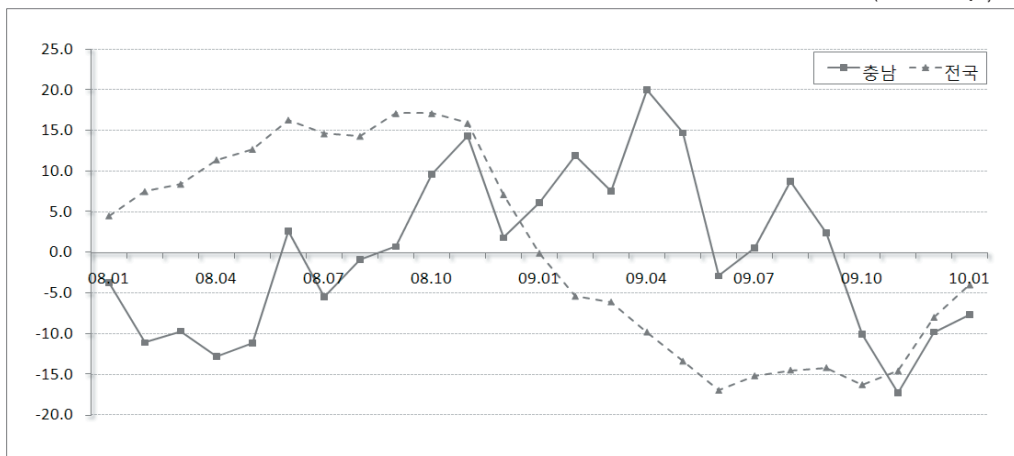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3.8) :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PDP, 실리콘웨이퍼 등
- 식료품(+27.7) : 건강보조식품, 분말인삼, 홍삼, 햄, 혼합조제분말 등

[감소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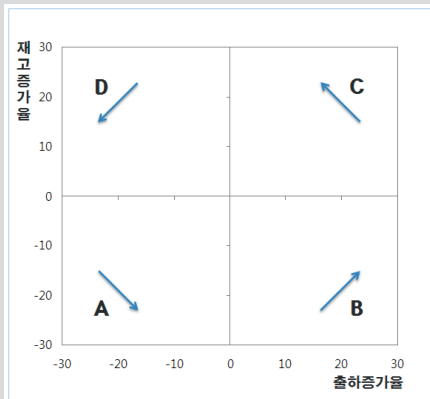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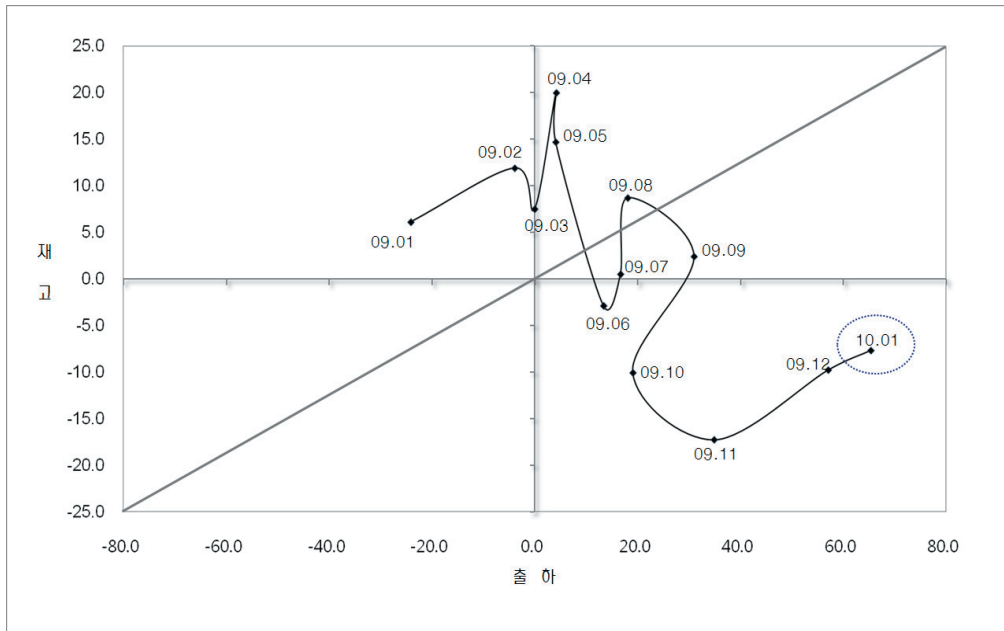
- 자동차(-19.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자동차용내연기관, 에어백 등
- 음료(-63.7) : 인삼음료, 과즙음료, 혼합음료
- 가구제조업(-67.7) : 싱크대
- 섬유제품(-28.0) : 자동차용커버, 면사, 재생섬유직물, 원단편조물 등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재고 분석]



- A : 경기회복기(의도하지 않은 재고감소)
- B : 경기확장기(의도된 재고증가)
- C : 경기후퇴기(의도하지 않은 재고증가)
- D : 경기침체기(의도된 재고감소)

- A: 수요증가에 대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로 대응함에 따라 재고는 감소하고 출하 증가
- B: 본격적인 수요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증가
- C: 수요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을 조정하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고는 증가하고 출하는 감소
- D: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기업들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

3. 소비 및 물가

[소비]

- 2010. 1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91,905백만원으로 전월대비 4.8% 감소,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지수는 141.7 기록
-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감소로 인해 대형마트 경성판매액은 전월비 2.0%, 전년동월비 3.7% 각각 감소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12.3) : 컴퓨터(+18.5), 가전제품(-11.2), 기타(-35.6),
- 준내구재(-13.1) : 운동, 오락용품(-24.9), 의복(-14.1), 기타(-5.6)
- 비내구재(+5.3) : 음식료품(+7.2)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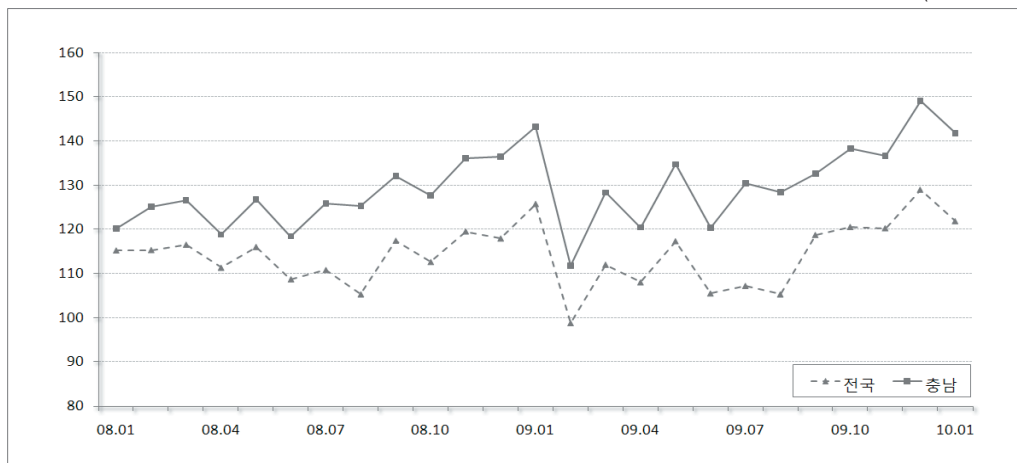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1월	10월	11월	12월 ^p	1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791,094	4,662,101	4,654,969	5,020,066	4,755,617	-0.7	-5.3	
충 남	159,916	149,320	147,437	163,918	157,976	-1.2	-3.6	
대형소매점	91,284	89,093	87,789	96,501	91,905	0.7	-4.8	
대형마트	68,632	60,227	59,648	67,417	66,071	-3.7	-2.0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 2010. 2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17.0으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0.5로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5.7%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4.3%, 10.4% 상승, 신선과일은 3.9% 하락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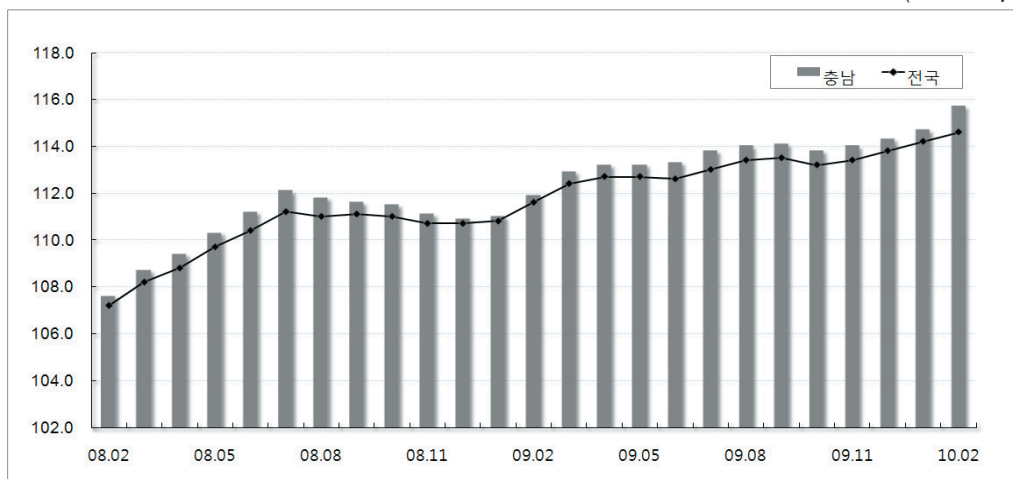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1.6	113.4	113.8	114.2	114.6	2.7	0.4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1.9	114.0	114.3	114.7	115.7	2.9	0.3
상 품 상 조 별	상 품	111.5	114.0	114.7	115.2	115.8	3.9	0.5
	서비스	112.2	114.0	114.1	114.3	114.6	2.1	0.3
생활물가지수		112.8	115.4	115.9	116.4	117.0	3.7	0.5
신선식품지수		104.5	95.8	101.0	105.8	110.5	5.7	4.4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0. 1월 충남의 수출은 대중국수출 호조로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85.3% 증가(36억 69백만달러)하여 전월에 이어 큰 증가폭 유지 (+87.2%→+85.3%)
 - 평판디스플레이(+82.4%), 집적회로반도체(+92.4%), 컴퓨터(+99.3%)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0. 1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제지원료 등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전월보다 증가세 확대
 - 원유(+74.7%), 석유제품(+244.5%)등으로 인해 전월보다 증가세 확대(+14.6%→+47.9%)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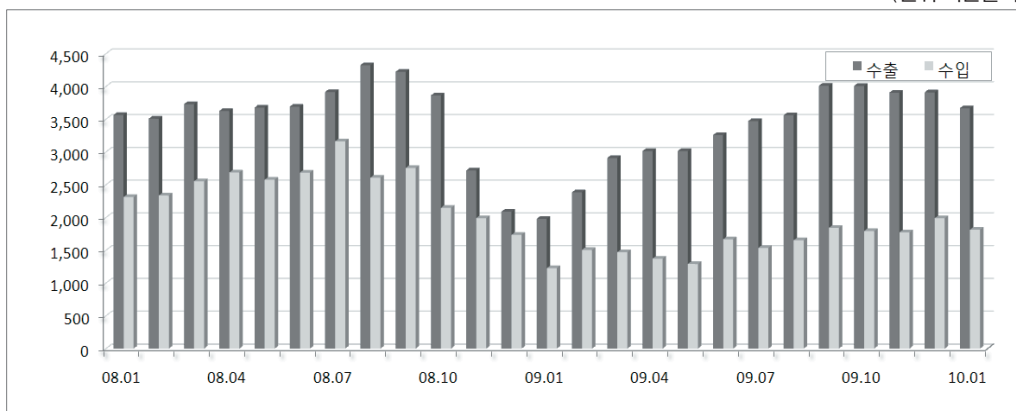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1월	10월	11월	12월	1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21,133	33,970	33,992	36,010	31,007	46.7	-	-13.9
	수입	24,899	30,397	29,535	32,920	31,468	26.4	-	-4.4
	무역수지	-3,766	3,573	4,457	3,090	-461	-	-	-
충남	수출	1,980	4,009	3,906	3,910	3,669	85.3	-	-6.2
	수입	1,227	1,794	1,774	1,990	1,815	47.9	-	-8.8
	무역수지	753	2,215	2,132	1,920	1,854	-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달러)



1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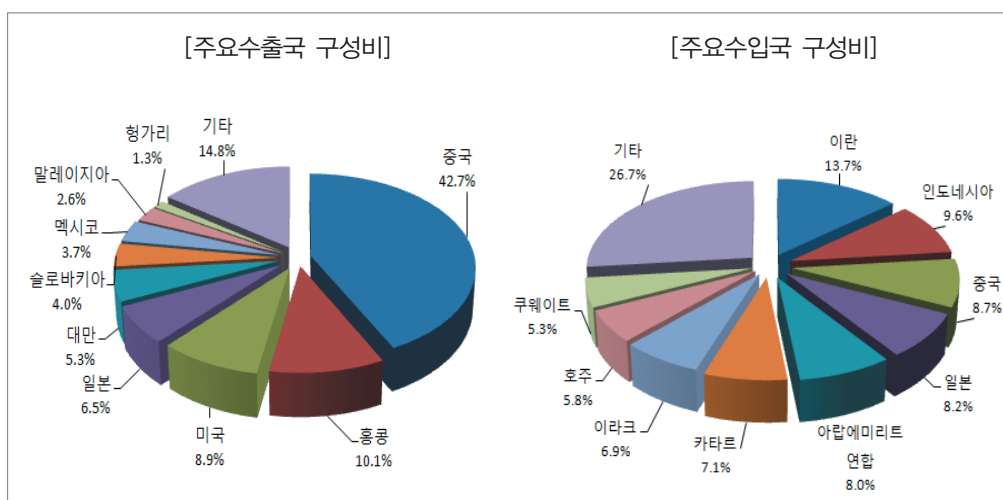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3,669	85.3	-6.2	100.0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47	82.4	-7.6	34.0
2	반도체	977	92.4	-8.7	26.6
3	석유제품	198	72.6	39.4	5.4
4	컴퓨터	161	99.3	-3.0	4.4
5	합성수지	146	37.7	-3.9	4.0

1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1,815	47.9	-8.8	100.0
1	원유	721	74.7	-15.1	39.7
2	석유제품	261	244.5	0.0	14.4
3	석탄	251	-15.1	3.3	13.8
4	제지원료	40	36.5	17.6	2.2
5	식물성물질	33	-19.9	-26.7	1.8

1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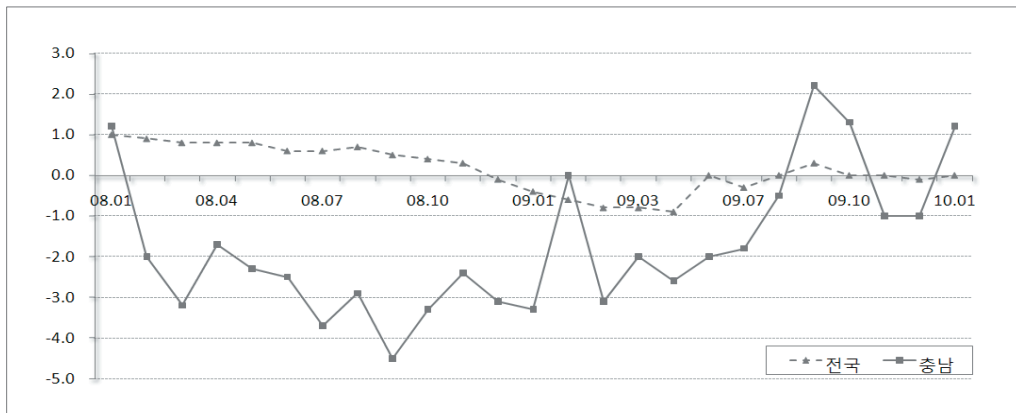
- 2010. 1월 충남의 15세이상 인구(+1.8%)와 경제활동인구(+2.8%)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 인구는 1,603천명으로 전년동월(1,575천명)보다 28천명(1.8%)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932천명으로 전년동월(906천명)보다 26천명(+2.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8.1%로 전년동월(57.5%)에 비해 0.6%p 상승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취업자]

- 2010. 1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2009. 7월 이후 3개월 연속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9. 11월부터 감소세 유지
- 도내 전체 취업자수는 890천명으로 전년동월(880천명)에 비해 10천명(+1.2%) 증가했지만 전월대비 -2.3% 감소
- 광업제조업(+10.7%)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부문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1%)부문은 감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0. 1월 충남의 실업자는 41천명으로 전년동월(26천명)대비 15천명(+59.7%)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2.8%)대비 1.6%p 상승한 4.4%

6. 금융

[수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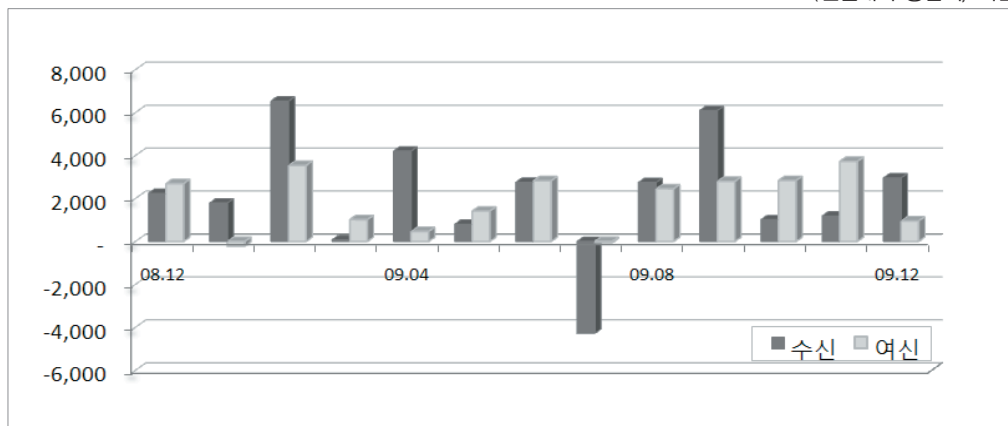
- 2010. 12월 충남의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 등 예금이 증가하였으나 시장성수신이 크게 줄어 감소규모 예금은행 수신이 감소한 반면, 농산물 판매대금 유입, 우체국 예금 증가 등으로 비은행기관 수신 증가
- 예금은행 수신은 감소폭 증가된 반면 비은행기관은 증가폭 확대
 - 예금은행 : 11월 -792억원, 12월 -1,505억원
 - 비은행기관 : 11월 +1,973억원, 12월 +4,459억원

[여신부문]

- 2010. 12월 충남의 예금은행 여신은 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큰 폭 감소로 전환
- 비은행기관은 대전, 천안, 당진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담보대출 호조 및 신규대출 확대 등으로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여신 감소,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규모 확대
 - 예금은행 : 11월 +2,467억원, 12월 -1,564억원
 - 비은행기관 : 11월 +1,254억원, 12월 +2,513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0. 1월 충남의 건축허가 면적은 399천 m^2 로 전년동월대비(-39.0%) 및 전월대비(-65.4%) 감소세 기록
- 1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36.2%), 주거용(17.2%), 상업용(14.4%)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654,850	400,493	495,128	1,156,021	399,707	-39.0	-65.4	
주거용	111,577	89,363	85,924	606,294	68,921	-38.2	-88.6	
상업용	86,405	73,484	95,836	111,877	57,729	-33.2	-48.4	
농수산업용	44,084	50,250	43,311	83,762	39,356	-10.7	-53.0	
공업용	172,879	105,124	146,847	170,431	144,748	-16.3	-15.1	
기 타	239,925	82,272	120,580	183,656	88,953	-62.9	-51.6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0. 1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324천 m^2 로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 전월대비 31.9% 감소하여 2009년 12월 이후 감소세 지속
- 1월 착공면적 구성비 : 주거용(35.8%), 공업용(22.1%), 상업용(13.9%)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251,229	479,221	927,808	474,932	323,545	28.8	-31.9	
주거용	19,683	171,888	149,298	70,890	115,980	489.2	63.6	
상업용	96,250	90,164	247,365	91,888	44,876	-53.4	-51.2	
농수산업용	19,311	42,202	57,076	39,858	18,572	-3.8	-53.4	
공업용	33,143	55,651	125,434	181,255	71,387	115.4	-60.6	
기 타	82,842	119,316	348,635	91,041	72,730	-12.2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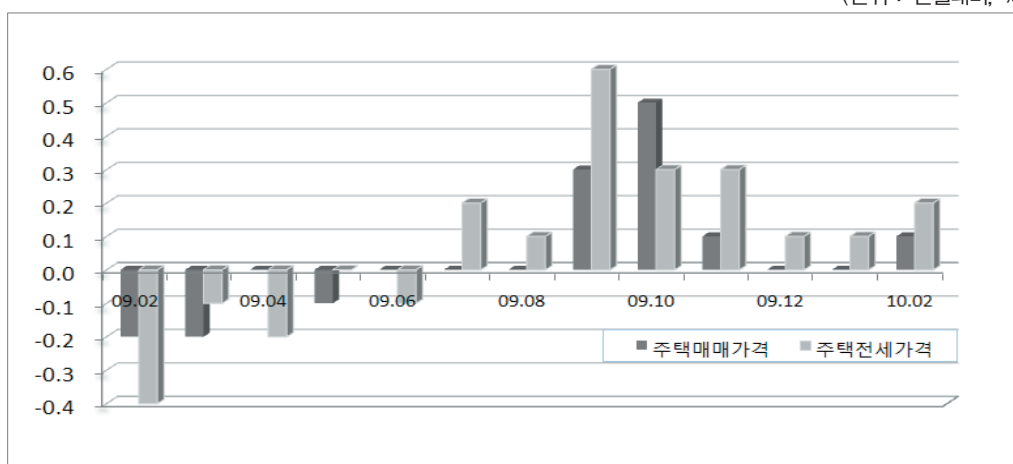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0. 2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증가(+0.6%) 및 전월대비 소폭 증가(+0.1%)
 - 2009. 9월부터 주택매매가격 전월비 증가세 유지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0.1% 상승
- 2010. 2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 소폭 확대
 - 2009. 7월부터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0.2%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0.2.9] 美 곡물업체 카길사, 충남도에 6,500만 달러 투자

-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하판도 평택지방 항만청장, 민중기 당진군수는 카길 코리아 김기용 회장과 도청 회의실에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카길사가 당진항 양곡부두 배후부지에 6,5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 2013년까지 당진항 양곡부두 배후부지 107,917㎡(32,000평)에 배합사료 공장을 건설하며, 완공 시 1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국내 축산 농가의 사료값 안정화 기대

['10.2.16] 충남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2010 세계대백제전」 업무협약

- 충남도(도지사권한대행 이인화)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 지원과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道는 “웅진사비궁의 하루”, “세계역사도시 전시관”,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영상관”, “체험! 백제문화 속으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역사 학습 탐방에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산 교육현장 제공 방침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도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지역 132만 학생(초등 60만명, 중등 35만명, 고등 37만명) 관람객 유치 기대

['10.2.17]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한 産學研官言 상생다짐대회

- 대전일보사 주최로 천안 세종웨딩홀 6층에서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다짐대회 개최
- ⇒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협약 등 체결

['10.2.22] 2010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 설명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천안 불당동 소재)에서 지식경제부와 충남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수출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 ⇒ 향후 해외마케팅 참여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안정적인 수출 유도 계획 (설명회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게시관 참고)

['10.2.22~25]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 도는 도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시·군 기업인협의회 회의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 논산시(2.22), 연기군·보령시(2.23), 공주시(2.24), 천안시(2.25), 청양군(3.4)

['10.2.24] 충청권광역유관기관협의회 창립총회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권오창) 주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본부장 최종태) 주관으로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충청광역경제권 정책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충청광역연계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 활용, 충청권기관단체 등의 우수사례 발굴, 광역발전사업 공동홍보 등의 역할 수행

['10.2.25] 「2010 세계대백제전」 참여업체 특화보증 대출협약

-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와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보증대출 협약식 체결(시행기간 : '10. 2. 18~10. 31)
 ⇨ 행사 참여업체 및 개최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주,논산,부여 일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 5.5~6.0%(보증료 1%)의 저리대출에 의한 시설개선 자금 지원

['10.2.25] 충남 농공단지협의회 정기총회

- 호서대 벤처협력관 203호에서 시군 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및 관리소장,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9년 사업결산과 '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10.2.25]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1.8억 달러 호텔 투자유치

-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인화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근웅 코업피엠씨(주) 대표 및 신현수 당진테크노폴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내에 1억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비즈니스 및 레지던스 호텔(2013년 착공 예정)을 건축, 운영하는 투자협약을 체결
 ⇨ 600실 규모의 비즈니스 및 레지던스 호텔이 완공되면 송악지구 입주 외국인 등에게 숙박 편의 제공 및 쉼터 역할은 물론, 연간 약 3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5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10.3.2]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본격 시작

- 道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27,38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6,484개 사업장에 연인원 5,177명을 투입하여 희망근로 사업을 본격 시작
- 대상사업으로 친 서민·생산적 사업, 소기업 등 건설현장 인력지원, 주민 공동체 조성사업, 도 추진 10개 시책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 친서민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취약계층 주택수리 및 무료세탁,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있고, 공공시설물 개·보수, 재해 취약지 시설 정비, 소기업 인력 지원 등 생산적 사업과 지방하천 살리기, 참 아름다운 마을 조성 등의 시책사업이 있음
- 한편, 사업초기 나타난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희망근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3월 2일부터 5일까지 실·국·본부장 등 도청 간부들이 시군에 출장하여 현장체험 실시

['10.3.3] 충남 경제협력관에 이창기 한국은행 부국장 영입

- 이창기 협력관은 198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한국은행의 여신기획과, 외환심사과, 경영관리팀, 재산총괄팀 등을 거친 국내·외 금융 전문가로서 도의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중소기업 자금관리, 벤처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동향 분석, 경제교육·외자유치·물가안정 관련업무 등을 맡게 됨

['10.3.4] 지역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 대통령 주재로 246개 광역·기초단체장, 정부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고용현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지자체 우수사례 등 발표(서울특별시 청년창업 프로젝트, 경기도 일자리종합센터, 구미시 We together운동, 장흥군 무산김 주민주)
- 조기 일자리 총력체제로의 전환과 역량 결집을 위해 생산적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의 설치,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취·등록세, 재산세 등 감면), 청년창업가 육성,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정보·통계 시스템 정비,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을 중점 추진
- ▷ 道는 농어촌 마을갯길 도로환경 개선, 지역별 명품자원조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자립형 주민주도형 일자리를 발굴 시행하고, 일자리 종합센터 설치(도, 천

안·아산·서산·당진) 및 취업정보센터 보강(그 밖의 시군), 기업과 일자리 창출 협력 강화 등 중앙의 지원대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생산적 일자리 사업 발굴·추진

['10.3.8]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합동간담회

- 도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공구매 관련 48개 기관·단체 실무부서장 67명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위원과 계룡건설 등 대형건설사 대표 및 현장소장이 함께 모여 공공구매제도 정착 등 구매환경 조성 협의

['10.3.17]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 시행

- 지속된 경기침체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 및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시행(총76억원 규모, 금리 연4%, 1인당 최대 3백만원)
- 행정안전부와 도가 각각 380백만원을 출연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도내 새마을금고가 대출 실행(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및 시군별 새마을금고에 문의)

['10.3.22] 삼성미소금융재단 전국 2호점 아산지점 개소

-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에 30㎡ 규모로 충남 서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미소금융재단 개소
 - ⇒ 영세상인·자영업자의 창업자금 지원(5천만원 이내 금리 연2~6%)

충남, 2010년 지역 일자리 창출 : 89개 사업 76,889개

- 공공부문 : 40개 사업 / 28,752개
 - 희망근로 4,787 / 공공근로 993 / 행정인턴 552 / 공동체일자리 1,620 / 커뮤니티 비즈니스 240
 - 사회서비스 일자리(공공행정 752 / 문화·체육·관광 556 / 복지·여성·환경 16,498 / 농업·산림 2,754)
 - 민간부문 : 18개 사업 / 32,323개
 - 인력양성 1,485 / 기업보조금 지원 938 / 취업알선 및 지원 4,900 / 기업 및 외자유치 25,000
 - SOC부문 : 31개 사업 / 15,814개
 - 산업단지 조성 6,680 / 수해상습지역 개선 1,046 /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1,892 / 정책 숲 가꾸기 1,910 / 기타 4,28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로 문의(042-251-2694)

2010 청년드림 프로젝트 : 청년 일자리 3,269개 창출

- 창업 및 취업 박람회 : 700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복지인턴, 공공건설현장 청년건설엔지니어 육성, 공공기관의 공공행정인턴 등 청년인턴 일자리 : 642개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 589개
 - 전략산업(유망기업연계형) 인력양성 : 500개
 - 영상미디어산업 인력양성 : 450개
 - 청년고용 보조금 지급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 118개
 - 이공계(메카트로닉스) 미취업자 전문교육 : 110개
 - 지역맞춤형(3D 입체 영상기술 및 자동차부품 분야) 인력양성 : 110개
 - 반도체·자동차 분야 인력양성 : 50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로 문의(042-251-2679)

충남 중소기업 육성계획 : 1조 1,144억원 투입

- 정책자금·이자 차액 지원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 8,056억 4천만원
-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 32억 89백만원
- 기업애로 해소 등 현장지원체계 확립 : 18억 94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180억 37백만원
-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 709억14백만원
- 농공단지 조상 활성화 등 산업입지 적기공급 : 1,449억 79백만원
- 지역 혁신센터 운영 등 신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 172억 7천만원
-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지원 등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 지원 : 59억 96백만원
-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육성 등 전략산업 육성 : 463억 6천9백만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로 문의(042-220-3224, 3307)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계획

- 지원규모 : 65업체 내외
- 사 업 비 : 150백만원(국비 60, 도비 90)
 - 중소기업진흥공단(50백만원/20업체), KOTRA(100백만원/45업체)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수출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수출마케팅 관련 제반 사항
 - 해당품목 현지 해외시장조사(수요, 시장성, 경쟁동향 등)
 - 거래선발굴 및 바이어 반응조사 등 수출상담 Follow-UP
 - 지사화 참여업체 현지 세일즈 출장시 상담 주선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로 문의(T.042-251-2458)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계획

- 대 상 : 천안시 등 7개 시군(백석농공단지 등 13개소)
- 사 업 비 : 1,433백만원(도비430, 시군비1,003)
- 사업내용 : 가로등·보도블럭·경계석 교체, 주차장·경계방벽 설치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산업입지과로 문의(T.042-220-3121)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741호)
 - 국가채무의 재조명(742호)
 - 글로벌 생산시스템의 리스크와 대응방안(743호)
 - 희소금속과 산업경쟁력(744호)
 -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745호)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관광부국 실현을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431호)
 - 의료제조업 기술경쟁력 현황 및 발전방안(432호)
 -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 STAR형 여가의 확산(433호)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소재혁명 불 지피는 복합소재(1078호)
 - 가계부채 위험한가(1079호)
 - 미래유망산업, 현장을 가다(1080호)
 - 일본경제의 쇠퇴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1081호)
 - 한국기업의 글로벌 HR 과제(1082호)
- 포스코경영연구소(CEO 레포트) : <http://www.posri.re.kr>
 - 세계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 2010년 국내외 주요기업 전략 특징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e-Kiet 산업경제정보) : <http://www.kiet.re.kr>
 - 우리나라 기술시장의 현황과 시사점(471호)
 -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472호)
 - 기업의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473호)
 - 신재생 에너지 설비산업의 역량분석 및 정책지원방향(474호)
 - 플랜트 수주전망과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현안(475호)
- 한국금융연구원(금융 VIP 시리즈) : <http://www.kif.re.kr>
 -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조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287	—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5	—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47	—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1.1	—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
경제성장률	%	4.0	5.2	5.1	2.2	—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5	—
광공업		27.8	27.4	27.5	28.3	—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8	—
건설업		7.6	7.5	7.4	7.0	—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3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2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7	—
민간비중	%	30.5	32.5	34.4	30.6	—
정부비중		69.2	67.5	65.6	69.4	—
총자본형성	십억원	247,511	256,866	269,188	286,918	—
국내비중	%	19.3	18.3	16.7	16.5	—
국외비중		80.7	81.7	83.3	83.5	—
최종소비지출	%	65.9	67.7	69.0	69.1	—
민간비중	%	20.2	20.5	21.0	21.3	—
정부비중		79.8	79.5	79.0	78.7	—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3.2기준)

금리

구 분	'08말	'09말	'10.1말	2.25	2.26	3.2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3.02	2.01	2.01	2.02	2.02	2.02	0.00	0.01
CD(91일),%	3.93	2.86	2.88	2.88	2.88	2.88	0.00	0.02
국고채(3년),%	3.41	4.41	4.27	4.09	4.10	4.11	0.01	△0.30
국고채(5년),%	3.77	4.92	4.82	4.61	4.62	4.63	0.01	△0.29
회사채(3년, AA-),%	7.72	5.53	5.39	5.23	5.24	5.24	0.00	△0.29

주가

구 분	'08말	'09말	'10.1말	2.25	2.26	3.2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124.47	1,682.77	1,602.43	1587.51	1594.50	1615.12	1.29%	△4.02%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2,692	42,856	57,290	40,049	32,018	40,605	8,587	△2,404
KOSDAQ지수	332.05	513.57	496.56	504.63	507.03	507.03	0.18%	△1.09%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80,648	301,051	6,788	1,295	△395	3,316	3,712	

※ 기간중 : '08말('08.1.1~12.31), '09말('09.1.1~12.31), '10.1말('10.1.1~1.31), 3.2('10.3.1~3.2)

환율

구 분	'08말	'09말	'10.1말	2.25	2.26	3.2	전일비	'09말비
₩/US\$(종가)	1,259.50	1,164.50	1,161.80	1,163.40	1,160.00	1,152.60	+0.64	+1.03
선물환(NDF, 1개월물)	1,257.60	1,165.90	1,162.80	1,164.60	1,161.00	1,153.60	+0.64	+1.07
₩/¥100	1,396.81	1,264.52	1,293.19	1,297.57	1,298.99	1,290.99	+0.62	△2.05
¥/US\$	90.17	92.09	89.84	89.66	89.30	89.28	+0.02	+3.15
US\$/EUR	1.4093	1.4325	1.3927	1.3461	1.3587	1.3534	△0.39	△5.52
CNY/US\$	6.8506	6.8279	6.8269	6.8272	6.8265	6.8285	△0.03	△0.01

※ '09년 평균 환율 : (₩/US\$)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S\$) 1,147.7원, (₩/¥100) 1,265.5원

※ 전일비(%) 및 '08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8말	'09말	'10.1말	2.25	2.26	3.2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1.43	0.25	0.25	0.25	0.25	0.25	0.00	0.00
T/NOTE(10년물)	2.21	3.83	3.59	3.62	3.61	3.61	△0.01	△0.22
DOW	8,776	10,428	10,067	10,325	10,404	10,406	0.76%	△0.23%
NIKKEI	8,860	10,546	10,198	10,126	10,172	10,222	0.49%	△3.08%
SANGHAI COMP	1,821	3,277	2,989	3,052	3,090	3,073	△0.53%	△6.23%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405	59	210	199	195	198	△4	136
CDS (bp, 5Y)	316	86	106	104	99	98	△5	13
CRS (% , 1Y)	1.10	2.25	1.70	1.60	1.60	1.58	△0.02	△0.67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8말	'09말	'10.1말	2.25	2.26	3.2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36.45	78.04	71.59	74.29	76.50	75.16	2.21	△1.54
WTI 2월 선물 (\$/bbl)	50.57	79.36	72.89	79.66	78.70	79.68	△0.96	△0.66
원당(센트/파운드)	11.8	26.95	29.90	23.60	22.30	22.64	△5.51%	△17.25%
밀 (센트/부셸)	611	542	474	519	505	505	△2.85%	△6.83%
대두 (센트/부셸)	972	1,049	914	961	963	964	0.16%	△8.20%
옥수수 (센트/부셸)	407	415	357	389	382	382	△1.85%	△7.89%
동 (\$/톤)	3,050	7,377	6,868	7,096	7,360	7,390	3.72%	△0.23%
알루미늄 (\$/톤)	1,520	2,242	2,096	2,089	2,132	2,14	2.08%	△4.91%
DDR2 1GB (\$/개)	0.73	2.57	2.23	—	2.38	2.38	0.05	△0.19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5.28\$, (WTI) 77.46\$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82,435	—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4	—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96	—
산업구조	—					—
농림어업	%	8.2	7.6	6.7	6.4	—
광공업		43.4	44.7	45.9	47.1	—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3.1	—
건설업		9.6	9.3	8.7	9.2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3	—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천명	219	228	219	190	181
광공업		147	150	170	169	164
건설업		57	56	66	55	56
서비스업 및 기타		508	533	544	558	560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7 01	112.2	1.06	6.9	6.7	99.6	0.53
02	113.4	1.08	7.9	7.2	100.2	0.56
03	114.4	0.89	8.5	7.5	100.6	0.40
04	115.6	1.06	9.4	8.0	101.2	0.57
05	116.3	0.54	9.2	8.0	101.2	0.07
06	116.8	0.48	8.9	7.9	101.3	0.03
07	117.0	0.20	8.0	7.5	101.0	-0.24
08	117.6	0.49	7.7	7.4	101.1	0.07
09	118.3	0.60	7.7	7.4	101.3	0.20
10	119.2	0.76	7.9	7.5	101.7	0.38
11	119.8	0.44	7.4	7.4	101.7	0.07
12	120.4	0.52	7.1	7.2	101.9	0.16
2008 01	120.9	0.45	6.7	7.0	102.0	0.11
02	122.0	0.91	7.3	7.3	102.6	0.60
03	122.9	0.68	7.4	7.4	103.0	0.38
04	122.8	-0.07	6.1	6.6	102.6	-0.37
05	122.6	-0.13	4.9	5.7	102.2	-0.42
06	122.5	-0.09	3.8	4.9	101.8	-0.36
07	122.8	0.25	3.6	4.5	101.8	-0.00
08	123.2	0.32	3.4	4.2	101.9	0.08
09	123.1	-0.06	2.6	3.6	101.6	-0.30
10	123.6	0.35	2.6	3.4	101.7	0.13
11	123.3	-0.22	1.6	2.7	101.3	-0.44
12	122.0	-1.07	-0.8	1.2	100.0	-1.29
2009 01	120.0	-1.60	-3.9	-0.8	98.2	-1.79
02	118.5	-1.27	-6.1	-2.4	96.8	-1.44
03	117.4	-0.96	-7.3	-3.7	95.7	-1.12
04	117.0	-0.29	-7.2	-4.3	95.2	-0.47
05	117.4	0.35	-5.9	-4.2	95.3	0.15
06	119.3	1.61	-2.4	-2.7	96.7	1.35
07	120.9	1.36	0.5	-1.3	97.8	1.12
08	122.1	0.94	2.5	-0.2	98.5	0.73
09	123.6	1.22	4.9	1.4	99.5	1.01
10	124.7	0.89	6.6	2.7	100.2	0.68
11	125.7	0.81	8.0	3.9	100.8	0.61
12	126.3	0.51	8.7	4.7	101.1	0.32
2010 01	127.7	1.07	10.3	6.0	102.0	0.88

산업활동지표

(2005=100.0, %)

구 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원자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원자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원자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 (기)비	전월 (기)비
2007	141.0	-	13.4	-	139.0	-	12.6	-	132.0	-	5.0	-
2008	153.8	-	9.1	-	147.6	-	6.2	-	134.4	-	1.8	-
2009	182.4	-	18.6	-	167.6	-	13.6	-	121.2	-	-9.8	-
2008 4/4	148.1	142.3	-4.6	-10.8	140.6	135.0	-7.3	-11.6	134.4	136.3	1.8	6.2
2009 1/4	141.5	145.1	-5.5	2	132.7	135.8	-9.3	0.6	134.5	131.4	7.5	-3.6
2/4	178.0	175.8	11.1	21.2	164.7	162.2	7.2	19.4	122.4	124.2	-2.9	-5.5
3/4	202.6	202.0	29.1	14.9	182.4	182.6	21.9	12.6	128.8	133.0	2.4	7.1
4/4	207.5	202.4	40.1	0.2	190.5	185.3	35.5	1.5	121.2	122.8	-9.8	-7.7
2008 01	153.2	154.3	14.5	2.1	148.4	149.9	13.1	0.7	128.7	127.1	-3.7	-3.6
02	137.2	155.4	15.5	0.7	134.9	151.8	13.6	1.3	122.2	122.2	-11.1	-3.9
03	158.9	155.0	13.4	-0.3	155.7	151.7	10.0	-0.1	125.1	121.3	-9.7	-0.7
04	154.8	153.0	12.4	-1.3	153.0	151.0	9.1	-0.5	114.4	113.6	-12.8	-6.3
05	164.2	160.6	16.9	5.0	156.7	153.3	11.8	1.5	113.7	114.1	-11.2	0.4
06	161.7	163.4	16.8	1.7	151.3	152.6	10.0	-0.5	126.0	126.8	2.6	11.1
07	157.3	156.1	11.5	-4.5	151.7	151.3	12.1	-0.9	124.8	123.7	-5.5	-2.4
08	156.0	161.7	12.2	3.6	147.6	153.5	9.0	1.5	125.8	124.7	-0.9	0.8
09	157.5	160.9	14.8	-0.5	149.6	153.3	13.0	-0.1	125.8	128.3	0.7	2.9
10	170.4	161.1	7.9	0.1	158.5	150.2	2.5	-2.0	138.8	139.8	9.6	9.0
11	149.1	145.3	-4.2	-9.8	139.4	135.0	-8.5	-10.1	145.9	148.0	14.3	5.9
12	124.7	120.5	-18.1	-17.1	123.9	119.8	-16.5	-11.3	134.4	136.3	1.8	-7.9
2009 01	120.1	129.4	-21.6	7.4	112.7	121.4	-24.1	1.3	136.5	137.4	6.1	0.8
02	138.8	146.8	1.2	13.4	129.7	137.4	-3.9	13.2	136.7	134.1	11.9	-2.4
03	165.5	159.2	4.2	8.4	155.7	148.7	0.0	8.2	134.5	131.4	7.5	-2.0
04	171.7	167.3	10.9	5.1	159.4	154.3	4.2	3.8	137.3	137.6	20.0	4.7
05	177.2	175.7	7.9	5.0	163.2	162.4	4.1	5.2	130.4	129.9	14.7	-5.6
06	185.2	184.5	14.5	5.0	171.6	169.9	13.4	4.6	122.4	124.2	-2.9	-4.4
07	196.6	195.2	25.0	5.8	177.0	176.6	16.7	3.9	125.4	124.3	0.5	0.1
08	195.4	202.5	25.3	3.7	174.3	180.9	18.1	2.4	136.7	135.4	8.7	8.9
09	215.8	208.4	37.0	2.9	196.0	190.4	31.0	5.3	128.8	133.0	2.4	-1.8
10	205.9	203.0	20.8	-2.6	188.8	185.2	19.1	-2.7	124.8	125.2	-10.1	-5.9
11	204.6	199.4	37.2	-1.8	188.0	182.4	34.9	-1.5	120.6	122.4	-17.3	-2.2
12	211.9	204.9	69.9	2.8	194.7	188.3	57.1	3.2	121.2	122.8	-9.8	0.3
2010 01	207.3	211.3	72.6	3.1	186.4	192.4	65.4	2.2	126.0	123.5	-7.7	0.6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13,880	9.4	—	729,608	10.5	—
2008 4/4	249,295	17.6	6.0	171,820	22.5	-2.4
2009 1/4	244,944	10.3	-1.7	178,205	12.6	3.7
2/4	242,815	10.3	-0.9	174,293	13.0	-2.2
3/4	252,688	7.4	4.1	189,818	7.8	8.9
4/4	273,383	9.7	8.2	187,292	9.0	-1.3
2008 01	71,560	24.2	-5.9	50,885	30.9	-0.2
02	74,867	12.5	4.6	54,742	17.8	7.6
03	75,708	22.1	1.1	52,697	29.8	-3.7
04	71,452	12.9	-5.6	49,378	14.4	-6.3
05	76,955	20.9	7.7	53,386	24.8	8.1
06	71,812	25.6	-6.7	51,439	28.9	-3.6
07	76,640	24.1	6.7	57,696	27.6	12.2
08	76,872	19.9	0.3	59,216	18.9	2.6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91,284	27.6	6.1	68,632	34.9	13.5
02	71,135	-5.0	-22.1	50,595	-7.6	-26.3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3,908	9.5	8.4	64,356	11.5	13.8
08	82,884	7.8	-1.2	64,166	8.4	-0.3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2010 01	91,905	0.7	-4.8	66,071	-3.7	-2.0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8 4/4	111.2	4.6	112.6	4.4	94.8	-11.5	111.3	4.7	110.5	4.2	111.0	4.4
2009 1/4	111.9	3.8	113.0	3.0	104.8	3.0	112.1	3.9	111.2	3.2	111.9	4.0
2/4	113.2	2.6	114.8	1.6	107.5	10.7	113.5	2.7	112.1	2.0	113.1	2.7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08 02	107.6	3.8	109.3	4.9	103.8	-3.3	107.7	4.0	107.3	3.9	107.4	3.0
03	108.7	4.1	110.8	5.3	99.3	-6.1	108.7	4.1	108.7	4.7	108.4	3.4
04	109.4	4.3	111.7	5.5	100.0	-5.7	109.5	4.3	109.0	4.7	109.1	3.9
05	110.3	5.1	113.1	6.7	98.7	-4.6	110.5	5.2	109.9	5.5	110.2	4.8
06	111.2	6.0	114.3	7.7	92.7	-7.6	111.4	6.1	110.7	6.2	111.1	5.7
07	112.1	6.5	115.2	8.1	96.7	-7.4	112.2	6.5	111.4	6.5	112.2	6.4
08	111.8	6.1	114.5	7.4	98.9	-5.1	111.9	6.2	111.1	6.0	111.9	5.9
09	111.6	5.5	114.0	6.2	98.2	-11.8	111.8	5.6	111.0	5.4	111.6	5.4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7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8 4/4	8,670	-36.2	-30.4	5,875	-24.8	-31.1	2,795
2009 1/4	7,273	-32.7	-16.1	4,204	-41.6	-28.4	3,069
2/4	9,287	-15.6	27.7	4,325	-45.6	2.9	4,962
3/4	11,043	-11.4	18.9	5,032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5.4	6,267
2008 01	3,565	2.5	-16.4	2,312	12.5	-12.5	1,253
02	3,508	6.9	-1.6	2,336	26.9	1.0	1,172
03	3,730	-2.1	6.3	2,555	21.9	9.4	1,175
04	3,627	-0.1	-2.8	2,687	19.5	5.2	940
05	3,678	-1.6	1.4	2,577	10.0	-4.1	1,101
06	3,693	-3.5	0.4	2,686	22.0	4.2	1,007
07	3,916	-6.4	6.0	3,163	43.5	17.8	753
08	4,325	1.8	10.4	2,609	35.3	-17.5	1,716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9	85.3	-6.2	1,815	47.9	-8.8	1,854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7	1,547	1,021	998	23	526	2.2	64.5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08 4/4	1,571	994	967	27	576	2.7	61.6
2009 1/4	1,577	929	900	29	648	3.1	57.1
2/4	1,585	1,021	988	33	563	3.3	62.4
3/4	1,592	1,020	991	28	572	2.8	62.3
4/4	1,598	992	965	27	606	2.8	60.4
2008 01	1,556	929	910	19	627	2.1	58.5
02	1,557	919	896	24	638	2.6	57.5
03	1,559	979	956	23	580	2.4	61.3
04	1,560	1,019	998	21	542	2.0	64.0
05	1,562	1,035	1,012	23	527	2.2	64.8
06	1,563	1,041	1,021	19	523	1.9	65.3
07	1,565	1,022	997	25	543	2.4	63.7
08	1,566	1,017	995	22	550	2.1	63.5
09	1,568	1,010	984	26	558	2.6	62.8
10	1,569	1,022	999	23	547	2.3	63.6
11	1,571	1,010	982	28	560	2.8	62.5
12	1,572	951	921	29	622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669	2.8	55.9
02	1,577	923	895	27	655	3.0	56.8
03	1,580	959	926	33	621	3.5	58.6
04	1,582	1,008	978	29	575	2.9	61.8
05	1,585	1,020	986	34	565	3.3	62.2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06 12	128,492	192,168	320,660	159,494	110,303	269,797
2007 01	122,748	191,184	313,932	159,968	109,678	269,646
02	124,918	191,529	316,447	161,404	110,479	271,883
03	123,726	192,822	316,548	163,234	111,073	274,307
04	127,105	192,523	319,628	164,099	112,239	276,338
05	126,037	192,541	318,578	164,790	113,388	278,178
06	129,003	194,498	323,501	167,063	114,563	281,626
07	125,792	193,484	319,276	168,909	115,922	284,831
08	127,090	193,140	320,230	170,215	117,581	287,796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8 4/4	1.22	1.43	1.64	0.29	3.33	0.20
2009 1/4	0.44	0.70	0.27	0.13	0.66	0.01
2/4	0.11	0.22	0.06	0.73	0.38	0.00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08 01	0.32	0.25	0.30	0.12	1.18	0.38
02	0.29	0.26	0.01	0.10	1.20	0.37
03	0.28	0.22	0.01	0.04	1.18	0.45
04	0.29	0.34	0.35	0.11	0.04	0.21
05	0.32	0.52	0.23	0.05	0.04	0.06
06	0.57	0.76	0.54	0.45	1.81	0.01
07	0.26	0.21	0.57	0.24	1.00	0.06
08	0.85	0.81	2.29	0.16	0.82	0.27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8 4/4	43,338	-8.3	2,951,291	-26.7	1,311,090	-38.7	46,857	31.6
2009 1/4	76,140	36.5	1,626,922	-7.4	938,720	-35.6	51,526	15.5
2/4	77,357	35.2	1,777,754	-5.3	1,309,835	-1.9	51,231	2.7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08 01	15,781	-1.1	489,665	1.0	625,313	48.2	14,075	89.0
02	14,870	-27.5	538,432	35.7	312,419	-29.3	14,888	102.2
03	25,124	51.3	728,610	0.8	520,869	-35.2	15,633	110.0
04	18,835	-1.8	832,681	29.9	609,271	6.8	16,227	96.7
05	19,625	14.0	460,003	-58.9	351,908	-50.3	16,910	83.9
06	18,739	60.2	585,106	13.4	373,960	13.0	16,750	49.0
07	18,862	61.2	723,613	-20.5	515,290	-27.7	16,646	55.5
08	13,922	-2.3	654,360	-5.4	373,723	-16.3	16,069	47.0
09	10,952	10.4	569,516	30.7	308,400	-0.6	16,186	47.6
10	16,759	30.9	742,487	-38.0	742,463	34.2	15,662	38.2
11	12,398	-26.4	814,228	-60.5	312,457	-70.1	15,277	32.8
12	14,181	-19.7	1,394,576	81.3	256,170	-52.6	15,918	24.7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7 02	98.4	0.0	0.2	98.8	99.4	95.5	94.8	1.0	0.3	95.8	94.3	94.1
03	98.3	-0.5	-0.1	98.6	99.4	95.5	95.3	1.2	0.5	96.1	95.0	94.4
04	98.5	-0.5	0.1	98.5	99.9	95.2	95.5	1.2	0.2	96.2	95.3	94.7
05	98.5	-0.6	0.1	98.4	100.2	95.2	95.5	1.0	0.0	96.3	95.3	94.7
06	98.6	-0.1	0.0	98.3	100.3	95.2	95.5	1.3	0.0	96.3	95.2	94.7
07	98.5	-0.1	-0.1	98.3	100.2	95.2	95.8	1.8	0.3	96.4	95.5	96.3
08	98.7	0.5	0.2	98.1	100.7	95.2	95.9	2.0	0.2	96.5	95.7	96.4
09	99.0	1.0	0.4	98.1	101.5	96.0	96.3	2.1	0.4	96.7	96.4	96.4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7 01	704.9	1.03	130.7	2.35	99.4	-0.70
02	712.5	1.08	132.3	1.28	103.6	4.20
03	723.9	1.60	133.3	0.71	102.8	-0.71
04	730.1	0.87	134.1	0.60	106.9	3.89
05	732.4	0.31	134.3	0.20	105.3	-1.44
06	732.0	-0.06	135.9	1.19	105.7	0.38
07	733.3	0.18	137.5	1.12	103.1	-2.48
08	736.6	0.46	138.7	0.89	104.9	1.73
09	738.9	0.31	140.3	1.14	109.9	4.77
10	740.2	0.18	142.5	1.57	114.3	4.00
11	739.4	-0.11	144.5	1.42	115.0	0.62
12	742.6	0.43	146.7	1.53	112.6	-2.12
2008 01	748.6	0.81	148.4	1.18	113.8	1.14
02	754.7	0.82	150.7	1.50	116.5	2.30
03	757.7	0.39	152.5	1.19	120.4	3.38
04	758.2	0.08	153.1	0.40	121.4	0.88
05	757.3	-0.12	154.9	1.21	121.6	0.15
06	761.0	0.49	157.0	1.31	122.3	0.57
07	763.2	0.30	157.3	0.19	123.0	0.57
08	767.6	0.57	158.3	0.67	124.2	0.94
09	765.0	-0.33	159.3	0.62	122.8	-1.14
10	767.5	0.32	160.6	0.85	124.2	1.14
11	767.0	-0.06	158.1	-1.59	126.9	2.23
12	767.4	0.05	150.9	-4.52	127.5	0.44
2009 01	758.5	-1.16	146.5	-2.95	126.7	-0.61
02	752.0	-0.85	144.0	-1.70	122.7	-3.21
03	740.6	-1.52	143.7	-0.20	123.7	0.82
04	741.1	0.07	144.8	0.72	122.9	-0.60
05	742.1	0.14	149.8	3.50	125.5	2.06
06	747.0	0.66	160.5	7.12	126.6	0.89
07	744.4	-0.34	171.5	6.83	128.3	1.36
08	745.1	0.09	180.7	5.41	128.4	0.09
09	749.6	0.60	188.9	4.54	129.4	0.76
10	752.1	0.34	194.9	3.15	129.1	-0.24
11	751.6	-0.07	198.8	2.03	130.9	1.42
12	746.7	-0.65	202.2	1.71	131.8	0.64
2010 01	747.0	0.03	204.9	1.33	135.0	2.46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7 01	2,164,144	1.32	3,773,544	2.07	1,903,780	2.62
02	2,190,394	1.21	3,832,605	1.57	1,912,232	0.44
03	2,210,285	0.91	3,910,123	2.02	1,941,541	1.53
04	2,239,428	1.32	3,949,638	1.01	1,990,517	2.52
05	2,263,615	1.08	3,993,533	1.11	2,071,958	4.09
06	2,283,235	0.87	4,054,187	1.52	2,106,915	1.69
07	2,303,622	0.89	4,142,124	2.17	2,097,878	-0.43
08	2,326,068	0.97	4,226,555	2.04	2,067,628	-1.44
09	2,352,706	1.15	4,268,199	0.99	2,024,161	-2.10
10	2,376,576	1.01	4,330,717	1.46	2,029,234	0.25
11	2,404,047	1.16	4,449,413	2.74	2,021,654	-0.37
12	2,428,815	1.03	4,567,917	2.66	2,041,531	0.98
2008 01	2,452,476	0.97	4,471,625	-2.11	2,028,178	-0.65
02	2,476,855	0.99	4,416,260	-1.24	2,087,105	2.91
03	2,504,556	1.12	4,299,592	-2.64	2,128,319	1.97
04	2,513,878	0.37	4,164,586	-3.14	2,104,635	-1.11
05	2,531,723	0.71	3,989,558	-4.20	2,073,894	-1.46
06	2,544,883	0.52	3,766,086	-5.60	2,018,746	-2.66
07	2,564,587	0.77	3,708,526	-1.53	2,036,918	0.90
08	2,575,844	0.44	3,735,533	0.73	2,009,331	-1.35
09	2,581,604	0.22	3,793,343	1.55	1,995,850	-0.67
10	2,608,533	1.04	3,831,981	1.02	1,964,275	-1.58
11	2,599,474	-0.35	3,769,763	-1.62	1,956,497	-0.40
12	2,566,561	-1.27	3,625,334	-3.83	1,912,615	-2.24
2009 01	2,549,114	-0.68	3,502,779	-3.38	1,787,427	-6.55
02	2,533,707	-0.60	3,332,121	-4.87	1,740,354	-2.63
03	2,520,530	-0.52	3,255,402	-2.30	1,673,066	-3.87
04	2,516,291	-0.17	3,241,820	-0.42	1,608,384	-3.87
05	2,526,444	0.40	3,323,442	2.52	1,520,292	-5.48
06	2,573,991	1.88	3,512,169	5.68	1,508,080	-0.80
07	2,606,810	1.28	3,708,731	5.60	1,525,056	1.13
08	2,638,797	1.23	3,856,513	3.98	1,503,246	-1.43
09	2,676,826	1.44	3,957,885	2.63	1,520,593	1.15
10	2,713,674	1.38	4,079,898	3.08	1,534,191	0.89
11	2,762,826	1.81	4,204,614	3.06	1,551,118	1.10
12	2,814,553	1.87	4,360,569	3.71	1,559,523	0.54
2010 01	2,889,553	2.66	4,464,252	2.38	1,611,055	3.30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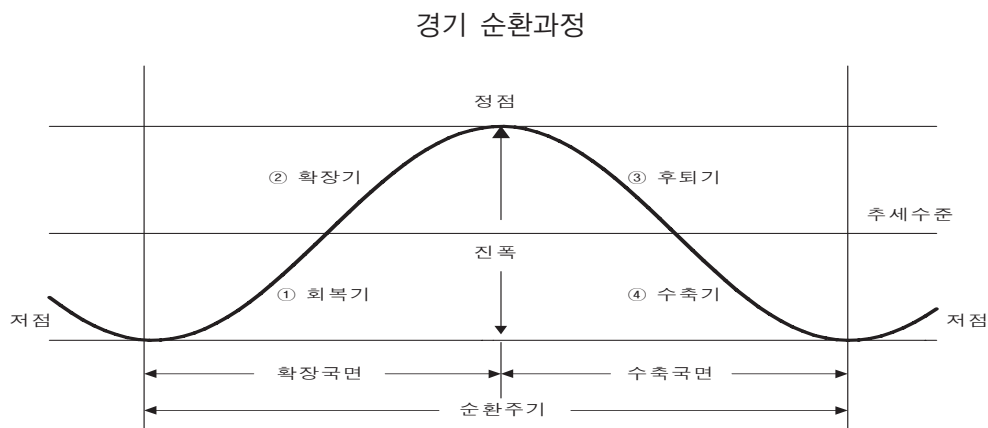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율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 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text{구성지표}), \quad t = 2, 3, \dots, T(\tex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0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199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